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은 청소년 배낭여행활동을 통하여 국토사랑의 마음을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수련거리이다.

이 수련거리는 기본, 응용, 도움과정의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과정은 국토사랑배낭여행활동이 열린 수련활동이라는 점에서 청소년개인 또는 집단에게 배낭여행에 필요한 준비와 활동 그리고 자료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전 과정이 여행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여행을 가상한 활동을 통해 국토사랑의 정신과 자세를 가다듬고 국토여행에 대한 유인기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본과정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우리의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의 독특성을 국가의 교과서적인 요소를 각각 영역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국토사랑배낭여행을 위한 기초적이고 예시적인 여행로와 각각의 소재를 통해 국토사랑의 마음을 가꾸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응용과정은 기본과정에서 제시된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그리고 대상을 가상하여 국토사랑배낭여행을 주제로 한 수련활동과 실제 여행프로그램의 형태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은 국토사랑 배낭여행활동이 수련활동으로서 구성되는 방법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도움과정은 일반적인 배낭여행의 방법과 준비사항 등 수련활동과 실천적 배낭여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보다 쉽고 재미있는 수련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련거리의 일반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고 아울러, 수련활동 참가자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국토사랑배낭여행활동을 재구성 할 수 있는 개괄적 방법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 기본과정

국토사랑활동
국민사랑활동
국가사랑활동

그 토 사랑 활동 국 영 립

민족의 정기 산
민족의 설움 강
민족의 터전 들
민족의 꿈 바다

민족의 정기 산

활동목표

우리나라의 산은 아기자기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뽐내낸다. 그러나 그 산을 뿔어내는 산맥은 나라의 골격으로 의연히 서있다. 백두대간을 이루고 있는 산을 등반하는 과정을 통해 국토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호연의 정신과 기개를 느끼게 한다.

활동과정

- ☐ 대활동로 : 백두대간
설악산 — 오대산 — 두타산 — 태백산 — 소백산 — 속리산 — 덕유산 — 지리산

-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둠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둠구성원 전체가 대간을 이루는 산에 대해서 조사한다.
- ▶ 등반할 산을 정하고 그 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둠별로 등반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등반일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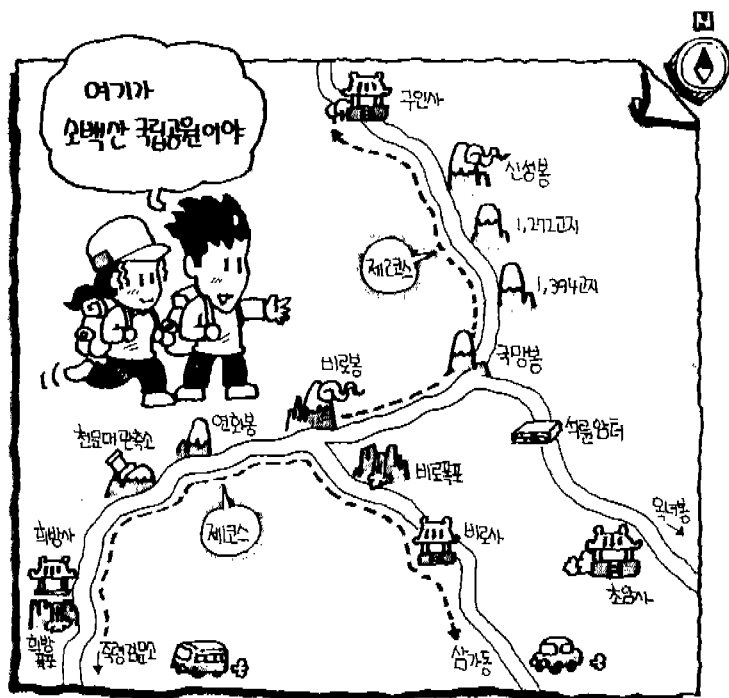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모둠별로 산의 특성에 유의하면서 등반한다.
- ▶ 모둠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남긴다.
- ▶ 정상에서는 모둠별로 등반하고 있는 산과 관련된 주제로 삼행시 짓거나 게임을 한다.

끝맺음과정

- ▶ 등반이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국토속에서의 산의 위치를 음미해 본다.
- ▶ 돌아온 후에는 소감문을 모은 문집발간이나 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환동로 : 소백산



소백산

소백산맥의 모산이자 우리나라 12대 명산중의 하나로 태백산맥에서 서남 쪽으로 갈라내려져 간 소백산맥의 첫머리가 된다. 죽령고개 남쪽에 있는 도솔봉을 시작으로 연화봉, 비로봉, 국망봉, 신성봉을 잇는 주능선이 장장 20km가 넘고 계곡이 깊으며 주변엔 명승고적이 많이 있다. 또한 연화봉 일대의 칠죽나무 군락지대, 정상일대의 주목나무 군락지대와 에델바이스 군락지대도 있어 유명하고 어느 때 찾아가도 그 계절에 걸맞는 꽃과 숲과 설화가 조화를 이루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산이다. 남사고 선생은 우리나라 명산 가운데서 소백산의 기운이 가장 온화하고 아름답다고 평했다. 소백산은 태백산처럼 중턱이상에는 바위가 거의 없는 흙산이다. 바위들은 산 아래골짜기에 모여 있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바라본 소백산 연봉들은 마치 물결이 넘실거리듯 출렁이며 뻗어간다. 또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이 겹겹으로 솟아올라 구름송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소백산의 높은 다섯가지 색깔이 도는 오색토이다. 흰색, 붉은색, 푸른색, 녹색, 검은색의 흙이 섞여 있는데 흰 빛을 많이 띠어 아주 곱게 보인다. 곱고 깨끗한 흙빛과 청청한 소나무가 어우러져 만든 풍치 또한 일품이다.

소백산 오르는 길

산(1,439 m)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코스로 나누어 산에 오를 수 있다.

■ 제 1 코스 : 16km 6시간 30분소요

죽령점문소(2km)－회방사(3km)－천문대(2km)－연화봉(3km)－비로봉(3.5km)－비로사(2.5km)－삼가동

■ 제 2 코스 : 15.2km 5시간 40분소요

비로봉(4km)－국망봉(1km)－1,394고지(2km)－1,272고지(1.2km)－신선봉(2km)－1,362고지(5km)－구인사

소백산 주변의 볼거리

■ 회방사

신라선덕여왕 12년(643년) 두운조사가 창건. 월인석보 1,2권 등의 목판이 보관되고 있었으나 6. 25 때 절과 함께 소실되고 현존 건물은 1954년 안대근 스님이 재건한 것이다.

■ 천문대

국립천문대 소백산 천체관측소로 1,383고지에 세워진 우리나라 유일의 천문대이다.

■ 초암사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신라시대 사찰로 의상대사가 한 철썩 머

무르며 화엄사상을 가르친 곳이다.

■ 석륵암터

국망봉 증턱에 자리잡은 절터로 앞에 펼쳐진 전망이 일품이다.

■ 구인사

상월조사가 천태종을 연 곳으로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해온 좌도
방 선택의 영향을 받았다.

■ 비로사

신라 때의 고찰로 울창한 참나무 숲에 덮여 있다. 등산로 길목에
있어 산행 중 좋은 표적이 된다.

소백산 중점활동

■ 자연 식생 군락지(비로봉 옆 주능선의 주목나무 군락지대, 연화 봉 능선길의 철쭉나무)관찰을 통한 산과 생태계에 대한 관찰·토 론활동

■ 천문대에서 별자리 관측

활동자료

□ 백두대간

우리나라 땅을 동·서로 갈라놓은 산줄기 이름.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인식하던 나라 땅의 산줄기는 하나의 대간과 하나의
정간, 그리고 13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졌다. 백두대간은 백두산
에서 시작되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부근에 이르러 서쪽으로 기울어 남쪽 내륙의 지리산까지 이르
는 거대한 산줄기로 나라 땅의 근골이라 하였다. 대간을 이루
는 주요 산은 기점인 백두산으로부터 동남쪽으로 허향령, 포태
산, 백사봉, 두류산 등 2,000m 정도의 높은 산으로 이어져 압
록강과 두만강의 유역을 동·서로 분계하였으며 북동쪽으로 장
백정간을 갈래하였다. 서남쪽으로 후치재, 부전령, 황초령으로
이어져 압록강의 남쪽과 동해로 유입되는 분수기를 이루며 다

시 남쪽으로 차일봉, 철옹산, 두류산으로 이어져 대동강의 남쪽 정맥인 해서정맥을 서남쪽으로 두었다. 원산 서남쪽으로 이어진 대간은 마식령, 백암산, 추가령으로 연결되어 임진강이 북쪽 유역의 경계를 이루었고 한강 북쪽 한북정맥의 시점을 이루었다. 동해안을 끼고 국토의 척추인 양 이어진 대간은 급강산, 진부령,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두타산, 태백산으로 이어 흐르다가 남쪽으로 낙동강의 동쪽 분수 산줄기인 낙동정맥을 형성시켰으며 대간의 본줄기는 내륙 깊숙이 소백산, 죽령, 계림령, 이화령, 속리산으로 뻗어내려 한강과 낙동강을 남북으로 분수하였다. 이로부터 추풍령, 황학산, 산도봉, 덕유산, 육십령, 영취산까지 금강의 동쪽 분수산맥을 형성하며 섬진강이 동쪽 분수령인 지리산으로 이어지면서 백두대간은 끝이 난다. 백두대간은 장백정간과 함께 서쪽으로 해안선까지 많은 ‘골’과 ‘들’을 이루며 뻗어 내려간 13개의 정맥을 이루고 있다. 이들 산줄기들은 지역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되었다. 이 땅의 지세를 파악하고 지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백두대간은 그 근본이 된다.

자료 : 우리 명산답사기. 1995.

한국 100명산. 1995.

민족의 설움 강

활동목표

우리의 강은 역사와 함께 흐른다. 민족의 젖줄로 사람에게 풍요와 윤택함을 더해주는 강은 애환과 희망을 함께 품고 있다. 그 중 한 강은 국토의 허리를 휘감으며 온갖 풍상을 견디어 왔다. 한강의 흐름을 더듬어 민족의 한과 정서를 찾아보고 알아본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 한강

남한강 : 태백 금대산 - 영월 - 단양 - 충주 - 여주

북한강 : 금강산 - 화천 - 양구 - 춘천 - 가평 - 양수리
- 팔당 - 서울 - 김포 - 서해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듈구성은 7명내외로 한다.
- ▶ 모듈구성원 전체가 탐사할 강을 정하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 ▶ 강탐사의 방법을 정한다.
- ▶ 탐사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여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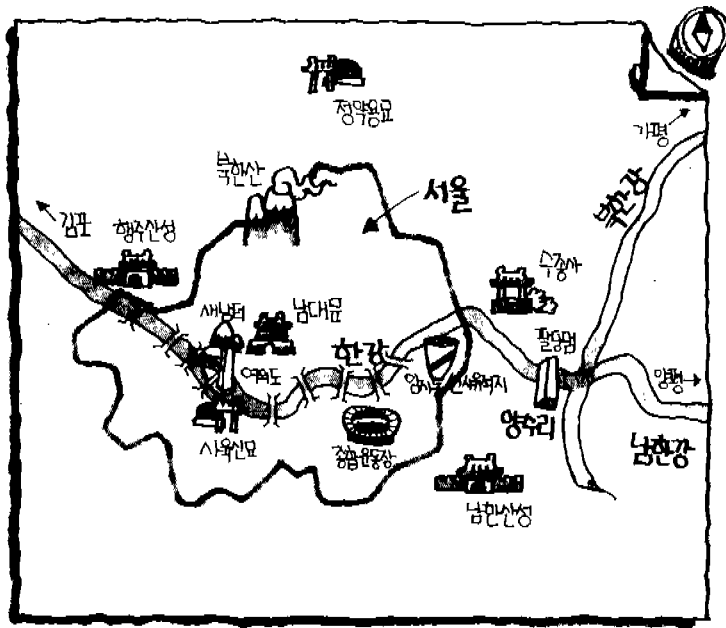
- ▶ 모듈별로 시대별 한강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한다.
- ▶ 탐사는 태백의 우통수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주산성에서 마친다.
- ▶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치는 양수리에서 휴식을 취하며 한강을 흐르는 도시 이름을 알아맞추는 게임을 한다.

- ▶ ‘한강’을 주제로 시조 또는 시를 각 모둠별로 한 편씩 짓는다.

끝맺음과정

- ▶ 행주산성 근처에서 탐사가 끝나면 모둠 전체가 모여 탐사과정을 평가한다.
- ▶ 탐사가 끝난 후 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양수리 - 잠실 - 행주산성



양수리 · 잠실 · 행주산성

양수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수면의 행정구역명을 갖고 있는 이 지역 근처에는 윤길산 수종사와 정약용의 묘 등 많은 사적지가 있으며 지금은 서울 주민들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잠실은 원래 뽕밭으로 유명한 부리도라고 불리우는 강가운데 섬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와서 북쪽의 강길을 넓히고 남쪽의 하천을 폐쇄하여 육지가 되었다. 이 자리가 지금의 올림픽 주경기장

과 잠실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그리고 잠실 개발로 인해 남쪽으로 흐르던 강이 폐쇄되면서 만들어진 호수가 석촌호수이다. 여기서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 전국의 주요물산들의 집결지였던 마포나루의 회미한 흔적을 지난다. 그리고 조선시대 외국의 압력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는데 빌미가 되었던 새남터를 볼 수 있으며 험한 한강변의 지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3대 대첩의 하나를 이끌었던 행주대첩의 행주산성에 이른다.

중점활동지

■ 수종사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운길산에 있는 절. 절마당에 서면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이 모여드는 일대의 경관이 아름답다.

■ 정약용 묘

경기도 양주군 조안면에 위치. 조선후기 실학자인 〈목민심서〉를 지은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묘가 있는 곳. 정약용과 형 약전, 동생 약종 등은 서학을 받아들여 조선 후기의 정치와 경제 뿐만 아니라 수산과 건축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 암사동 선사주거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사적 제 267호의 선사시대 주거지. 강건너 아차산성이 마주하고 있음. 5,000~4,000년 전의 선사시대 주거지로 추정됨. 세 개의 문화층 중에서 25기의 주거지 확인. 최하층은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문화, 중간층은 무문토기, 그리고 최상층은 백제시대문화층의 양식을 보인다.

■ 사육신묘

단종의 복위를 노린 성삼문 등 4명의 충신이 새남터에서 죽어 묻힌 곳이다.

■ 새남터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 원래는 조선시대 사형장. 쇄국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천주교 신도가 박해를 받고 죽은 새남터에 세운 천주교의 순교성지이다.

■ 행주산성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에 위치. 남동쪽은 한강하류의 격류가 구비치는 절벽이고 북서쪽으로는 탁트여 파주, 문산 등을 내려볼 수 있는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만든 요새비. 권율 장군이 2,300여 명의 군사로 왜군 3만명을 물리친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산성이다.

활동자료

□ 한강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거쳐 서울을 통해 서해로 흘러가는 총 497.5km에 이르는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다. 강의 유역은 26,270 평방km로 압록강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한강유역에는 선사시대 때부터의 유적등 많은 역사유산이 산재해 있으며, 삼국시대에는 한강을 차지한 국가는 번영했고 상실하면 쇠퇴할 정도로 중요한 강이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로는 나라의 중심인 수도를 품에 안고 있는 민족의 젖줄로 면면히 흐르고 있다. 한강은 우리 민족의 한과 희망이 교차하는 강이다.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끊임없이 한강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과 현대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행렬을 가슴아프게 했던 한서린 강인 동시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의 상징으로서 민족의 희망과 정서를 품은 강이다.

□ 한강의 주요지류

송천 : 강원도 정선군 북면 유천리 송천마을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송천이라 불리워 짐

오대천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과 오대산 남쪽 계곡의 물이 모여져 남류하여 한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오대천이라 불리워 짐

동대천 : 강원도 정선군 동면에 있는 화암약수와 굴벙이용소 등의 물이 모여져 정선읍 동쪽에서 한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동대천이라 불리워 짐

평창강과 주천강 :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물이 모여져 평창읍을 관류하여 흐르기 때문에 평창강이라 불리워지고 한강의 제 2 지류로 평창강으로 흘러드는 주천강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망산 기슭의 바위 틈에서 술이 흘러 나왔다 하여 주천강이라 불리워 짐

제천천 :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과 제천시 물이 모여져 남류하여 한강에 유입되기 때문에 제천천이라 불리워 짐

달천 :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 앞으로 흐르는 강으로 옛날 이강에 수달이 많이 살고 있어서 ‘달강’ 이란 이름이 생겼다는 설도 있고 물맛이 좋아 ‘달천’이 되었다는 설도 있음

섬강 :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간현리 강변에 병암이라는 바위 절벽위에 한 마리의 두꺼비가 기어오르는 듯한 바위가 있어 이 냇물을 두꺼비 섬자를 써서 섬강이라 부름

흑천 : 경기도 양평군 일대의 물이 모여져 양평읍 남쪽에서 한강에 합류되는 냇물로 냇물바닥에 검은 바위가 깔려 있어 물이 검게 보인다 하여 흑천이라 불리워 짐

북한강 : 한강의 제1 지류로 남한강에 대비되는 뜻으로 북한강으로 불리워 진다. 북한강에 흘러드는 한강의 제2 지류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은 홍천강, 소양강, 금천, 조종천, 가평천 등이 있음

왕숙천 : 남양주군 진접면 팔아리 앞을 흐르는 내로 태조가 한양으로 돌아오는 도중 여덟 밤을 자고갔다 하여 왕숙천이라 불리워 짐

곡릉천 :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 공릉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곡릉천으로도 불리워지며 공릉, 순릉, 영릉, 장릉, 효릉, 온릉 등 여러 능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곡릉천이라 불리워 짐

한탄강 : 임진강의 지류로 넓고 길다는 뜻으로 한탄강이라 불리워 짐

자료 : 한강. 1995.

민족의 터전 들

활동목표

우리나라의 들은 기름지다. 높지 않은 산과 어우러져 있는 들은 우리의 인정 만큼이나 포근하고 풍요롭다. 우리나라의 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호남들판을 탐사하는 과정을 통해 국토의 숨결과 가없이 넉넉한 인심을 느끼게 한다.

활동과정

- ☐ 대활동로 : 호남별판
김제 - 부안 - 고창

-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듬구성은 10명내외로 한다.
- ▶ 모듬구성원 전체가 우리의 들에 대해서 조사한다.
- ▶ 탐사할 들판을 선정하고 들판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듬별로 들판탐사시 주로 살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자료를 준비한다.
- ▶ 탐사일정과 활동방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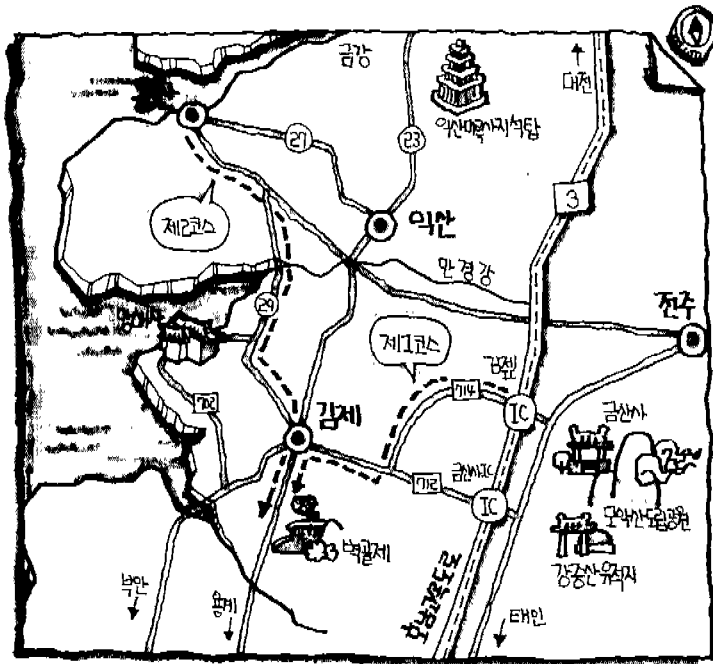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모듬별로 가능하다면 도보로 우리 들판의 특성과 들 주위에 발달한 유적지와 지형에 대해서 살펴본다.
- ▶ 모듬별로 탐사시 나타나는 특징들을 주제별로 분류한다.
- ▶ 저녁노을이 물드는 들판에 서서 강강수월래 등 전통관련 놀이를 한다.

끝맺음과정

- ▶ 탐사가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평야의 지리적 의미와 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해 정리한다.
- ▶ 돌아온 후에는 소감문을 모은 문집발간이나 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김만평야



김만평야

김만평야는 즉, 김제와 만경평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만큼 광활한 들판이다. 북쪽의 만경강과 남쪽의 동진강 사이에 펼쳐진 김만평야는 우리나라 쌀의 1/40을 생산하는 곡창지대이다. 만경에서 백제 때 벼의 고을로서 호남과 호서를 구분짓는 벽골제까지의 김제평야는 그 기름진 땅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고장이다.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벼의 물결로 장관을 이루는 김만평야는 잘 정돈된 경지로 더욱 빛을 발한다.

김만평야로 가는길

■ 제 1 코스 : 김제IC - 김제시 - 벽골제

■ 제 2 코스 : 군산 - 만경 - 김제시 - 벽골제

이 외에도 김만평야로 가는 길은 출발지에 따라 다양한 길이 있다.

단, 만경 - 벽골제 까지 15km의 지역은 도로로 이동하면 더욱 좋다.

김만평야 주변의 볼거리

■ 모악산

해발 793m의 산. 호남평야에 우뚝 서있는 산이다. 김제와 만경 평야와 같은 기름진 들판을 안고 이 산의 물줄기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원이 되어 호남평야를 적셔주고 있다.

■ 금산사

백제 때 세운 호남지역의 미륵신앙의 도량지. 국보 26호로 지정된 미륵전을 비롯하여 석련대, 당간지주, 오층석탑 등 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 강증산 유적지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동곡마을(구리골)소재. 증산교의 교주였던 강증산이 도통한 곳이라 불리우는 구리골약방 등이 있는 증산교의 성지이다.

■ 벽골제

김제군 부량면 월승리소재. 익산의 황동제, 고부의 눌제와 함께 호남평야의 3대 저수지로 사적 제 111호로 지정된 약 3 km를 뻗은 독의 길이와 4.3m의 높이를 가졌던 커다란 저수지이다.

김만평야 중점활동

■ 평야의 형성과 농사를 위한 용수의 형성과정 등에 관한 관찰과 조사

■ 김제, 부안, 고창에 걸쳐 있는 백제의 유적지와 문화유산 탐사

활동자료

□ 호남평야

전라북도 서쪽을 차지하는 평야. 국내최대의 평야로 주로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펼쳐져 있으며 전주, 이리, 경주, 군산의 4개시와 김제, 부안, 정읍 등 7개군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서해안 지역에 발달한 조석간만의 차이로 생긴 평야 등으로 이루어진 저위성평원이다. 농산물은 벼가 주로 생산되며 보리, 감자, 채소, 생강 등의 밭작물도 많이 나고 복숭아, 배, 감 등의 과수원에도 산출된다.

자료 : 답사여행의 길잡이. 1994.

국토는 향기롭다. 1995.

민족의 꿈 바다

활동목표

바다는 바깥세상으로 향한 하나의 통로이면서 우리 국토의 경계선이다. 바다를 향한 꿈을 찾아 나서면 바다의 끝에 홀로 서서 외로히 우리 국토의 끝을 지키는 섬이 있다. 물의 생활과는 다른 삶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섬 속에서 또 다른 우리 국토와 삶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서해를 지키는 섬 : 흑산도 - 가거도 - 만재도 - 태도 - 흑산도

남해를 지키는 섬 : 제주도 - 가파도 - 마라도

동해를 지키는 섬 : 울릉도 - 독도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둠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둠구성원 전체가 국토속에서의 바다와 섬의 위치에 대해 토론한다.
- ▶ 탐사할 섬의 특성과 섬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둠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배를 이용하여 이동하므로 이에 적합한 준비를 한다.

여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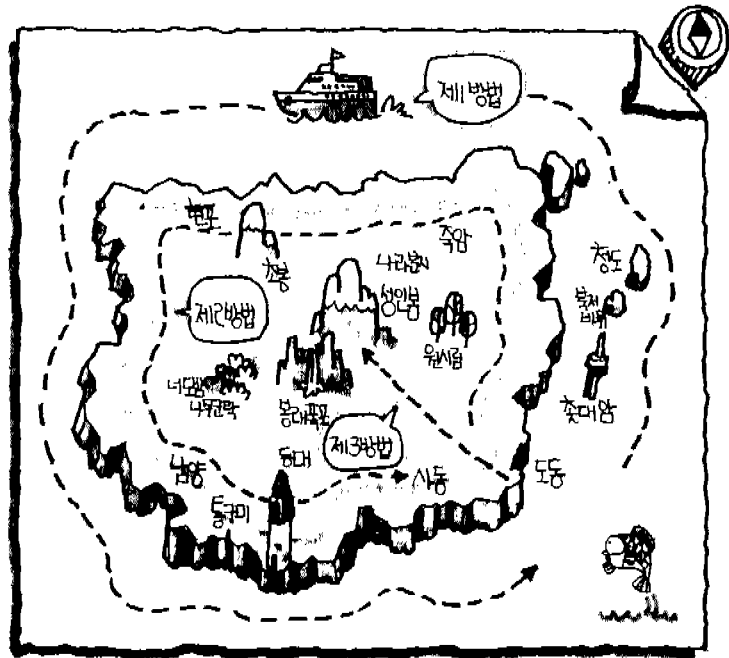
- ▶ 선상에서는 배멀미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한다.

- ▶ 선실보다는 갑판위에서 바다를 감상하거나 바다를 주제로 한 시나 노래, 영화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최초로 바다를 건너 섬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본다.
- ▶ 섬에 도착하면 섬의 생태계와 생활상을 중심으로 모둠별로 중점 활동을 정하고 탐사한다.

끝맺음과정

- ▶ 탐사가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국토속에서의 바다와 섬의 의미를 토론한다.
- ▶ 돌아온 후에는 기행문이나 사진전시회를 갖는다.

□ 소활동로 : 울릉도 - 선상에서 바라보는 독도



울릉도

울릉도는 지금부터 2천 5백만년 전쯤 신생대 3기와 4기 사이에 화

산분출로 생겨났다. 전체적으로 5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여우의 얼굴을 닮았다. 넓이는 73평방킬로미터, 해안선 길이는 56.5km, 가장 높은 곳이 983.6m다.

섬의 정수리에는 나리분지가 있는데 화산재가 쌓여 땅이 부드럽고 화산이 두 번째 폭발할 때 원래 꼭지점을 날려버려 파인 것이다. 분지 가운데는 2차 폭발의 자국 알봉이 있다. 이 땅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땅생김새다. 그리고 사방이 송곳처럼 뾰족한 산들로 에워싸여 있는데 동쪽은 나리령, 마등봉이, 서쪽은 송곳산, 미륵산, 형제봉이 꼭지점 성인봉과 함께 분지를 좌우에서 옹호한다. 울릉도에 사람이 처음 들어간 것은 김해식 토기시대 이후인 1세기 쯤으로 추정된다. 우산국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부터 보인다. 그러나 400년 넘게 역사기록에서 자취를 감춘 울릉도가 다시 역사에 등장한 것은 고려 태조 13년(930)이었으나 해적들 때문에 현종 13년 경에는 사람들이 모두 육지로 나왔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이를 거둬다가 고종 19년(1882) 조정에서 공도정책을 버리고 개척령을 발표하여 울릉도의 역사를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울릉도 탐사길

■ 제 1 방법 : 유람선을 타고 해안일주

저동 - 죽도 - 관음도 - 천부 - 추산 - 현포 - 태이 - 남양 - 통구미 - 사동 - 도동

쫓대바위와 죽도, 관음도, 동암, 삼선암 등과 해안 벼랑 곳곳의 천년 묵은 향나무와 고목들 그리고 쪽빛 바닷물과 갈매기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경관이 일품

■ 제 2 방법 : 해안일주 도로

해안과 바다 쪽을 동시에 볼 수 있음

■ 제 3 방법 : 도동에서 성인봉(984m)까지 도보

살아있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성인봉 오름길은 네 개다. 도동에서 시작하는 동남릉, 나리동 기점의 북면코스, 작은 모시개에서 나리령으로 올랐다가 동북릉을 타는 것과 성인봉에서 발원하는 석문동 계곡을 따르는 것이다.

이밖에 봉래폭포 쪽으로 오르는 길이 있지만 거의 찾지 않는다. 북면코스는 짧지만 이 땅의 돌도 없는 기이한 지형인 굼부리(칼 데라 화구)로 들어가게 된다. 동북릉은 식물견학코스다. 나리령의 원시림도 그렇지만 능선따라 계속 이어지는 섬 대나무 숲을 뚫는 맛도 특이한 경험이 된다. 석문동계곡은 길다. 또 험곡이라 비가 많이 올 때는 피하는 것이 좋고 오름길 보다는 내림길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 길 끝에는 국수바위, 사자바위, 투구바위 등 기암돌이 많다.

울릉도 중점활동

■ 울릉도 고유식물군과 천연기념물 관찰을 통한 생태계 조사

마흔일곱가지의 고유식물군

일곱가지 천연기념물 — 통구미와 대풍감의 향나무 자생지

태하령의 솔송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 군락지

도동의 섬개야광나무, 섬댕강나무 군락지

나리동 울릉국화, 섬백리향 군락지

성인봉 원시림

사동의 흑비둘기 서식지

■ 나리동의 투막집을 보고 환경과 주거양식 토론

귀틀집 형식의 투막집은 통나무를 우물 정자로 쌓아올려 짓는 ‘자연의 집’이다. 섬에서 많이 나는 솔송나무와 너도 밤나무를 쓰는데 엇걸어 생긴 틈새에는 흙을 발라 추위를 잘 막고 습도는 저절로 조절된다. 지붕에는 적송으로 된 너와가 이어지고 처마 끝에는 우뚝기라 하는 새를 엮은 울타리를 둘러싼다.

■ 도동 약수터 가는 길의 안용복 장군 충혼비에 새겨진 울릉도의 역사를 통해 국토속에서의 바다와 섬의 위치 인식

조선 숙종 때 일본사람들에게 ‘울릉도는 조선땅’임을 다짐받았던 의인 안용복 장군을 기리는 비문

노산 이운상의 비문

울릉 심경

- ▶ 관음일출 : 두루봉에서 보는 각새섬(관음도)의 해돋이로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보는 해돋이
- ▶ 태하낙조 : 황토구미의 벼랑길, 등대 가는 길을 오르며 보는 것이 제격
- ▶ 추산옹수 : 울릉도 지형의 특징인 ‘숫옴’의 대표격
- ▶ 봉래폭포 : 성인봉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음
- ▶ 학포기암 : 작은 황토구미의 만물상
- ▶ 석문동천 : 석문동천을 붙여 골계 일대의 국수바위, 사자바위, 투구바위를 완상
- ▶ 저동어화
- ▶ 나리아설
- ▶ 대풍향목 : 대풍감의 불꽃같은 향나무
- ▶ 성인울림 : 성인봉의 원시림

활동자료

□ 독도

울릉도의 새끼섬인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역사를 같이 해왔다. 제주도 사람들의 「이어도」처럼 「간산도의 전설」에 실려 울릉도 사람들의 유토피아가 되어왔던 섬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단 과수꾼인 독도는 그러나 우리 땅이면서도 아무나가 볼 수 없는 곳이다.

독도는 제3기말에서 제4기 초 9천 3백년전에 분출한 ‘화산성해산’으로 동,서도를 중심으로 주위 36개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주위에는 바닷제비, 섬새, 팽이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고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황소보다 큰 바닷사자들이 떼지어 살아 이를 멀리서 본 울릉도 어부들이 신선으로 알고 「간산도전설」을 퍼뜨렸으나 일본 어부들의 남획과 미공군의 폭격연습에 큰 피해를 입고 모두 북해도 쪽으로 옮겨가 버렸다.

1952년 1월 우리 정부가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재확인하자 일본 쪽의 항의로 시작된 영유권시비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6.25 전쟁중 우리 행정력의 공백기를 틈 타 일본이 독도에 ‘일본령’이라는 한자 표지를 세웠으나 이것을 보고 홍순철대장을 선두로 한 ‘독도의용수비대’가 조직이 되어 독도를 지켜왔다. 1980년에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오자 고 최종덕씨는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기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독도를 지키는 등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1988년 10월에 결성된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모임’은 그동안 독도에 모두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독도에 생기를 북돋우고 있으며 지금도 해마다 몇 차례 나무를 심으러 간다.

자료 : 울릉도. 1995.

섬섬섬. 1993.

국민사랑활동

나라의 쉼터 경기
나라의 여유 충청
나라의 향기 전라
나라의 터전 강원
나라의 숨결 경상

나라의 심터 경기

활동목표

수도 서울을 빙둘러싸고 있으면서 동서로 가로 흐르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경기도 답사를 통해 한 행정구역 안에서 지형에 의해 달라지는 언어나 생활관습 등의 차이를 살펴본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경기남부 : 전등사 - 수원성 - 안성청룡사 - 대농리미륵 -
이천도예촌 - 설봉산영월암 - 신록사 - 고달사터
- 파사산성 - 천진암 - 남한산성 - 강화도

경기북부 : 판문점 - 임진각 - 한탄강 - 산정호수 - 남이
섬 - 청평호 - 용문산 - 양수리 - 팔당댐 - 광
릉수목원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둠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둠구성원 전체가 경기도의 위치적 특성과 생활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 ▶ 답사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둠별로 답사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답사일정과 활동방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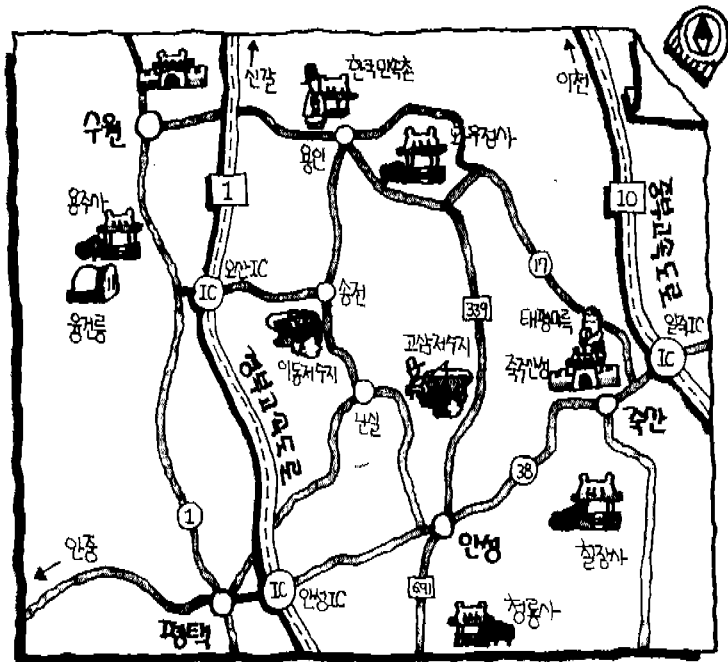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답사시에는 모둠별로 활동하고 점검한다.
- ▶ 답사 장소로 이동 중에도 주변경관에 유의하고 답사 장소에 관련된 주제로 게임이나 토론을 한다.
- ▶ 모둠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남긴다.
- ▶ 답사장소를 떠나기 전에 활동정리를 한다.

끝맺음과정

- ▶ 답사가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치적 특성과 그 속에서 이루어낸 삶의 모습에 대해 음미하고 정리해 볼 수 있게 한다.
- ▶ 돌아온 후에는 기행문집 발간이나 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수원 - 안성



수원·안성

아담한 지형의 수원은 역사에 빛나는 고도이지만 서울 근교의 어느

꽃보다 아름답게 꾸며진 전원도시이다. 광주산맥의 힘찬 꼬리가 서남쪽으로 쭉 뻗어 가며 양날개를 형성한 산봉우리들이 남으로 수원 땅을 감싸고 있다. 수원은 정조의 집권시기에 크게 만개했던 조선 후기 문화의 보고이다. 1789년 정조가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화성군 화산으로 이장하면서 수원지방 일대는 정조의 탁월한 예술가적 안목과 손길로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장중한 문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안성군은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덕성산, 칠현산, 청룡산 등이 있어 범상치 않은 지세와 인물이 출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이 치열한 분전을 치렀고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해 안성인의 올곧은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안성 땅은 마을미륵의 고장으로 부조리한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는 민중의 의지가 깃들여 있다. 이런 점에서 수원과 안성은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원은 문화형성의 주체가 왕이었던 반면 안성문화의 주체는 기층민중이었다. 한편 안성은 교통의 요지여서 팔도의 물건이 모여들고 상질의 농산물과 수공품이 쏟아져 나오는 문화의 접경지대였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안성의 유기그릇과 가족꽃신이 유명하여 생겨났지만 한때 안성에 가면 무엇든지 있다는 말로 통하기도 했으나 안성장도 밀려난지 오래다.

수원·안성주변의 볼거리

| 수원성

수원시내 한복판에 있는 수원성은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팔달문, 화서문 등 조선 후기 건축물의 백미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성곽의 장점만을 흡수해 완벽하게 건설된 도시 성곽으로 조선의 수도를 사도세자가 모셔진 용릉과 가까운 수원으로 천도하려는 계획하에 건설되었다. 정약용의 뛰어난 실학정신과,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끌어 낸 정조의 안목이 만난 섬세 한 결과이다.

| 용건릉

장조와 경의왕후를 합장해 모신 용릉과 정조와 효의왕후의 합장릉인 건릉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 용주사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지은 절로서 예술적 안목이 뛰어난 정조는 당대의 화원 김홍도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

■ 미륵당의 태평미륵

지방민의 친근마를 지니고 있는 고려 초기 양식을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

■ 죽주산성

산정에서 내려다 보면 안성별은 물론이고 이천·장호원이 한 눈에 잡히며 충청·전라·경상도의 삼남과 서울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 전시마다 치열하였다.

■ 칠장사

고려 때 혜소국사가 일곱도적을 제소한 절로 진흙 소조로 만든 사천왕상이 그대로 있다.

■ 청룡사

1900년대부터 등장했던 민중놀이패 남사당의 근거지였던 청룡사는 대웅전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 예사 절과 다르다.

수원·안성에서의 중점활동

■ 수원성에서 살펴보는 성곽의 구조물 명칭

■ 용릉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한중록>과 혜경궁 홍씨

그리고 무인상을 통해 알아보는 석인의 종류 및 위치

■ 태평미륵에서 느껴보는 미륵사상

■ 청룡사에서 느껴보는 서민사회에서 발생한 민중놀이 예인집단인 남사당의 애환

활동자료

□ 경기도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서 도의 중앙

부에 수도 서울이 위치함으로써 조선조 이래 한반도 생활무대의 중심이 되어왔다. 경기도의 정치·전략적 중요성은 백제 시조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래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고려왕조의 성립은 이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069년 개성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 황해도, 경기도 일부의 50여개 현을 합쳐 경기라 칭하고 이를 왕실 직할지로 삼은 것이 경기라는 명칭의 기원이다. 조선왕조의 창엽과 한양천도는 경기도의 운곽을 오늘날과 유사하게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가 지방행정 구역으로서 오늘날과 비슷한 지역을 관할하게 된 것은 조선 왕조의 세종 때부터이다. 그러나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뒤 서울이 수도가 되자 주변의 경기도 지역을 편입시키기에 이르러 수도가 비대해짐에 따라 경기도는 점차로 독자적인 성격보다도 수도 서울의 주변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경기도의 특산물로는 안성마춤이란 말을 만들어낸 안성의 늦그릇을 비롯하여 강화도의 화문석과 인삼, 여주와 이천과 광주지방의 도자기, 용문산의 산나물이 유명하다. 여기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에 따른 특산품도 있지만 뚝자리처럼 조상 때부터 그 만드는 솜씨가 이어져 온 특산품이 많이 있다.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지역으로서 여러 기능을 맡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 및 공업의 요새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좋은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생산업체를 끌어들이는 한편으로 곡창지대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 경기도를 살펴보는 또 다른 길

남한강의 물길따라 가는 길

충청·강원·영남 등지에서 서울로 물자를 실어 나르던 중요한 수송로 구실을 했던 남한강의 풍요로웠던 역사를 찾아가는 길
하남 미사리 선사 유적지 — 여주 이포나루와 파사산성 — 신록사 — 고달사 터

조선의 성곽문화를 찾아서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할 만큼 많은 성들을 쌓아 나라를

지켰왔었는데 이 성들을 찾아가는 길

남한산성 — 죽주산성 — 수원성

자료 : 한국의 발견 : 경기도. 1992.

답사여행의 길잡이7. 1995.

활동목표

칠백년에 걸친 백제문화의 터였고 산과 돌이 조화롭게 안배되어 있어 삶을 위한 개척정신이 별로 요구되지 않았던 충청도 지역 답사를 통해 백제예술의 특징인 온화함과 조화가 아직도 면면히 흐르는 화해롭고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느껴본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충청북도 : 탄금대 - 충주호 - 제천의림지 - 고수동굴 - 단양팔경 - 월악산 - 화양구곡 - 속리산 - 대청호

충청남도 : 아우내유적지 - 현충사 - 삼교호 - 태안반도 - 수덕사 - 비인 동백정 - 금강 - 정림사지 - 관촉사 - 동학사 - 낙화암 - 마곡사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듈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듈구성원 전체가 충청도의 위치적 특성과 생활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 ▶ 답사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듈별로 답사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답사일정과 활동방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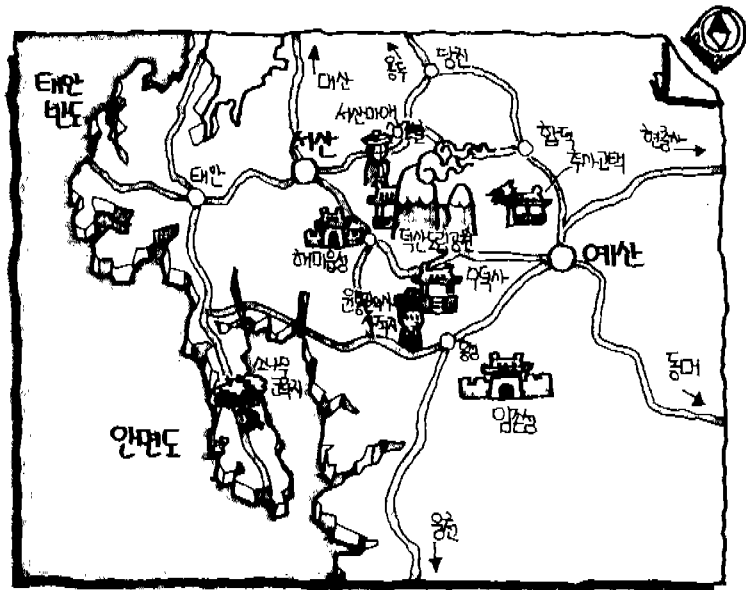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답사시에는 모듈별로 활동하고 점점한다.
- ▶ 답소 장소로 이동 중에도 주변경관에 유의하고 답사 장소에 관련된 주제로 게임이나 토론을 한다.
- ▶ 모듈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남긴다.
- ▶ 답사장소를 떠나기 전에 활동을 정리한다.

끝맺음과정

- ▶ 답사가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충청도의 위치적 특성과 그 속에서 이루어낸 삶의 모습에 대해 토론한다.
- ▶ 돌아온 후에는 기행문집 발간이나 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예산 - 서산 - 태안



예산·서산·태안

예산은 삼교천과 무한천이 만들어 낸 예당평야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차령 산맥이 서쪽으로는 가야산맥이 둘러싸고 있다.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친 곳으로 평야가 넓어서 예로부터 농사가 풍족했으며 수로도 발달해서 교역의 중심지로 상거래도 활발한 곳이었다. 예산의 옛이름은 백제 때에 오산현으로 백제부흥운동의 본거지였던 임존성이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서산지역은 바다와 얹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쌓아 놓은 고장이다. 백제시대에 중국과 교역하러 다니는 길목에 새겨진 태안 마애삼존불과 서산 마애삼존불은 그때의 유적이다. 또한 해미읍성은 바다를 지키는 내력을 말해준다. 태안의 북쪽에 있는 안면도는 남한 최대의 인공조림 소나무 숲이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고 있어 섬 어디를 가나 그윽한 솔내에 취하게 된다.

예산·서산·태안 주변의 볼거리

■ 임존성

임존성은 백제시대에는 수도경비의 외곽기지였으나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였고 후삼국 때에는 견훤과 왕건이 겨루었던 곳으로 깊은 시름을 담아온 곳이다. 백제 시대 최대의 테피형 산성으로 산등성이를 둘러 성벽이 이어져 있어 그 구불거리는 곡선이 햇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이 아름답다.

■ 추사고택

추사 김정희의 생가로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반가주택의 모습을 보여준다.

■ 윤봉길의사 사적지

사적지에는 생가와 네 살 때부터 중국 망명전까지 살 던 집이 따로 있다. 생가는 두 물길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배 모양의 도중에 있고 ‘광현당’이라는 당호가 붙어있다. 옛집은 ‘한국을 건져내는 집’이라는 뜻으로 윤봉길이 지어 붙인 ‘저한당’이라는 당호가 있다.

■ 수덕사

덕숭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수덕사의 백미는 고려 때 건축물인 대웅전이다.

■ 서산 마애 삼존불

서산 마애 삼존불의 미소는 꾸밈없고 건강하고 밝고 너그러워서 ‘백제의 미소’라는 애칭이 있다.

■ 개심사

전각이 많지 않지만 짜임새 있는 배치로 답답하지도 왜소해 보이지도 않는 개심사에는 영조시대 문화 절정기의 산물인 큰 괘불화가 전해 내려온다.

■ 해미읍성

조선시대 읍성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성으로 조선시대에는 충청병마절도사영이 있었던 곳으로 서해안 방어의 군사 요충지였음.

■ 안면도

태안반도 남쪽 끝에 있는 섬아닌 섬으로 섬 전체가 천혜의 소나무 군락지임.

예산·서산·태안에서의 중점활동

■ 임진성에서 정리해보는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의 역사와 우리나라 산성의 종류

■ 서산마애삼존불을 통해 살펴보는 백제시대 불상의 모습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백제시대 중국과의 교류 역사에 대한 이해

■ 해미읍성에서 알아보는 우리나라 읍성의 기능

■ 안면도의 홍송과 모감주나무 군락 관찰

활동자료

□ 충청남도

산 좋고 물 맑은 충청남도는 칠백년에 걸친 백제문화의 요람이었으며 나라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 고장이다.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에 위치한 충청남도는 삼남의 관문으로 특히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인 대전시와 그 일대는 경부선에서 호남선이,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가 갈라져 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충청남도는 기후가 꽤 온화한 편이고 해마다 알맞은 비가 내리고 토질도 기름진 편이라 농사짓기에 알맞다. 특히 충청남도를 동-서로 가로지른 금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논산평야는 우리나라 삼대 곡창의 하나로 식량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안선은 직선거리가 150km에 지나지 않으나 굴곡이 심한 리아시스식으로 되어 있어 길이가 1700km쯤에 이른다. 간만의 차이가 뚜렷하고 갯가지 바닷고기와 조개 양식장이 해안선을 따라 흩어져 있다. 특히 공주군의 백제 무령왕 무덤, 홍성군의 홍주성, 부여군의 부소산성, 서산군의 해미읍성 같은 사적지가 많이 있어 백제시대의 영고성쇠를 말해 준다. 특산물로는 금산군의 인삼을 비롯하여 청양군의 구기자, 보령군의 오석 등이 있고 토속품으로는 논산군의 참게와 오골계, 성환의 참외, 한산면의 세모시와 소곡주 등이 있다.

□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한반도의 한북판에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행정구역으로 보아 바다에 맞닿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로 이름난 산물이 많고 주민들의 마음도 착하고 부지런하고 명랑하여 옛날부터 ‘청풍명월’ 곧 바람 맑고 달 밝은 고장이란 이름을 들어왔다. 충청도라는 이름이 충주와 청주의 첫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충주지역과 청주지역이 충청북도의 두 핵을 이루고 있다.

□ 충청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길

백제문화의 향기를 따라 가는 길

서산 마애삼존불 - 태안 마애삼존불 - 수덕사 - 임존성 - 공산성 -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 - 곰나루 - 국립공주박물관 - 능산리 고분군 - 부소산성 - 구드래 나루와 백마강 - 정림사터 - 국립부여박물관 - 대조사 - 관촉사 - 계백묘

— 개태사

충남의 옛집과 고찰을 살필 수 있는 길

맹씨행단 — 외암리 민속마을 — 추사고택 — 수덕사 — 고산
사 — 개심사

충북의 계곡여행

화양구곡 — 선유동계곡 — 삼선암계곡

자료 : 한국의 발견 : 충청남·북도. 1992.

답사여행의 길잡이 4. 1995.

나라의 향기 전라

활동목표

넓은 들과 들 저편으로 펼쳐지는 완만한 산등성의 여린 곡선을 타고 바다로 치닫으며 펼쳐지는 전라도의 삶의 향기는 그 황토 빛 흙만큼이나 끈끈하다. 소리없이 넉넉한 소리와 춤과 노래를 가꾸어 온 전라도지역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의 향기와 멋을 느껴 본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전라북도 : 망해사 - 벽골제 - 구암리 고인돌군 - 격포 -
내소사 - 황토재전적지 - 내장사 - 신재효고택
- 선운사 - 법성포
전라남도 : 백양사 - 소재원 - 운주사 - 보성차밭 - 무위
사 - 다산초당 - 녹우당 - 토말 - 보길도 부용
동원림 - 진도 윤림산방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듬구성원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듬구성원 전체가 전라도의 위치적 특성과 생활,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 ▶ 답사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듬별로 답사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답사일정과 활동방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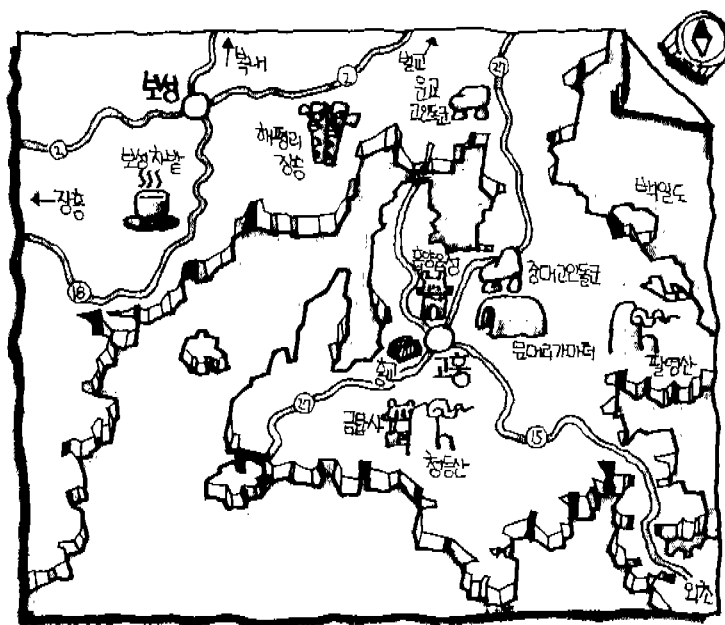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답사시에는 풍광보다 조용하면서도 넉넉하게 배어있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읽어 본다.
- ▶ 모듬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글 등으로 남긴다.
- ▶ 답사장소를 떠나기 전에 증점활동정리를 한다.

끝맺음과정

- ▶ 답사가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전라도의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그 속에서 이루어낸 삶의 모습에 대해 토론한다.
- ▶ 돌아온 후에는 기행문발표회나 사진, 그림 전시회 등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보성 - 고흥



보성·고흥

판소리 서편제의 터전인 보성 사람들은 남에게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 고집과 강한 기질로 유명하다. 보성 일대에는 특출한 유적은 없

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밭이 펼쳐져 있고 울어리의 문형식 가옥은 남도 내륙 민가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벌교에는 조선 영조때 세워진 세 칸 홍교가 남아 있어 요즘도 다리 구실을 하고 있다.

어딜가나 고인돌이 눈에 띄는 고흥에서는 운대리의 분청사기 가마터들과 읍내에 남은 옛 홍양읍성의 흔적이 반긴다. 큰 산업기반이 없어 자연환경은 비할데 없이 맑고 깨끗하다. 구릉들이 이어지는 고흥반도안의 풍광이 편안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둘레의 섬들은 남쪽 바다의 맑고 화창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보성·고흥 주변의 볼거리

보성차밭

보성읍에서 바로 남쪽바다를 향해 내려가다 보면 도중에 활성산 봉재를 넘게 된다. 그 곳 산자락에 펼쳐지는 온통 푸른 이랑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밭이다. 이곳에서 차가 대규모로 인공재배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녹차의 90%를 생산하는 차의 주산지이다.

해평리 돌장승

마을의 액막이와 바닷길의 안전을 위해 사찰장승을 마을 입구로 옮겨왔다. 남도 장승의 특색을 보이면서도 입모양새가 독특하다.

문형식 가옥

19세기 말에 지은 살림집으로 남도의 생활정서가 물씬 풍긴다.

벌교 홍교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홍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고흥 고인돌군

중산리 운교마을과 운대리 중대마을 입구의 고인돌군은 길가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다.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분청사기 가마 유적지이다.

홍양읍성과 홍교

전형적인 조선초기 읍성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읍성은 평상시에는 행정단위이지만 전쟁 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군사적 기능을 갖게 된다.

보성·고흥에서의 중점활동

- | 보성차밭에서 알아보는 우리나라 차의 역사와 차재배지의 여건과 가공방법
- | 해평리 돌장승에서 살펴보는 장승의 유래와 변천 및 유형을 통한 장승문화
- | 고려청자 가마터에서 살펴보는 가마모습과 청자의 제작과정

활동자료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한반도의 서남쪽 끝에 자리잡은 곳으로 서쪽과 남쪽에 바다를 끼고 있어 한반도에만 국한시키면 발밑 외진 곳에 있는 듯하지만, 멀리 바라보면 전라남도는 지구 위의 한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동북 아시아의 대륙에 이어져 있고 바다 밖으로는 서쪽에 중국 대륙의 산둥반도와 강소성이 있고, 남쪽에 제주도 너머 대만과 필리핀 같은 동남 아시아 여러나라가 있으며, 동쪽에 일본이 있는 확트인 곳이다. 이렇듯이 이 곳의 지리적 환경이 개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도 같은 서남쪽 섬지방의 가옥구조, 언어, 풍습 등이 대만의 고산족이나 오끼나와 같은 서남 태평양권과 비슷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단순히 한반도 문화의 터전에서 그치지 않고 한태평양 문화의 고장이 되기도 하였다. 박지원이 그의 소설 허생전에서 이상향을 이 곳으로 택한 것도 이곳이 열린 땅 곧 진취성의 고장으로 비쳤기 때문일 것이다. 전라남도의 동북부 지역은 지리산계의 크고 작은 산, 들과 어울려 높은 지대를 이루고 섬진강의 줄기가 이 지역의 산과 산 사이를 굽이쳐 지나며 기나긴 허리띠를 풀고 있다. 이 섬진강 연안을 끼고

평야가 위치한다. 이러한 산세와 지세는 예로부터 전라남도를 천혜의 농사터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삼백이라 일컫는 쌀, 소금, 목화가 먹고 쓰기에 충분했을 뿐더러 호남에 가뭄이 들면 전국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생기게 할 만큼 전라남도의 농업 생산성은 높다. 이 지역은 농업사회에서의 생활의 안정과 따뜻한 기후, 그리고 끈기있는 기질 덕분에 독특한 학문과 문화권이 형성되었고 많은 역사인물이 나와 경상도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다. 특히 이곳은 섬이 많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함경도 다음 가는 유배지로 유배문화가 이루어졌다.

□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노령산맥 때문에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흩어진 고원과 분지들로 전라북도는 인삼과 고추 같은 밭농사와 고냉지 채소 재배를 발달시켰다. 또한 이 고원과 분지들은 대관령에 버금가는 좋은 목축지도 제공하였다. 서부 평야권의 지형은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대로 자리를 굳히는 데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일찍부터 저수지를 만들어 논농사에 힘써 왔고 전라북도의 문화는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넓은 들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경문화가 그 밑바탕을 이루어 왔다.

□ 전라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길

남도의 얼굴 장승을 찾아가는 길

장성 원덕리 석불입상 — 운주사 — 법천사 장승 — 영암 도갑사 — 쌍계사터 돌장승 — 장흥 보림사 — 해평리 장승

남도의 절집과 원림을 살필 수 있는 길

장성 백양사 — 담양 면양정 — 송강정 — 명옥헌 — 식영정 — 소쇄원 — 취가정 — 환벽당 — 화순 쌍봉사 — 강진 월남

사터 — 백련사와 다산초당 — 해남 대문사 — 미황사

백제역사와 변사반도를 찾아가는 길

미륵사터 — 벽골제 — 망해사 — 구암리 고인돌군 — 격포 —
수성당 — 내소사 — 유천리 도요지 — 개암사

호남의 너른 들녘과 서해바다의 정취를 따라가는 길

벽골제 — 망해사 — 격포 — 수성당 — 내소사 — 개암사 —
선운사 — 고창읍성 — 법성포 — 불갑사

농민전쟁의 현장을 찾아가는 길

무장객사 — 고부성 — 동학혁명모의탑 — 녹두장군옛집 — 황
토재전적지 — 말목장터 — 만석보터 — 백산 — 전주성

자료 : 한국의 발견 : 전라남·북도. 1992.

답사여행의 길잡이 1·5. 1995.

나라의 터전 강원

활동목표

높은 산과 험한 고개가 바닷가로 이어져 내리는 강원도는 그 속에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을 거의 다 품고 있다. 어업과 광업의 핵심처 이면서 동시에 관광의 보고이기도 한 관동지역 답사를 통해 지형이 이루어내는 삶과 민심의 모습을 이해한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동해안코스 : 통일전망대 - 화진포 - 청간정 - 설악산 -
낙산사 - 하조대 - 경포대 - 추암 - 무릉계곡
- 대이동굴 - 신리너와집

내륙코스 : 봉평 - 월정사 - 정선 - 고씨동굴 - 청령포 -
장릉 - 법흥사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둠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둠구성원 전체가 강원도의 위치적 특성과 생활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 ▶ 답사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둠별로 답사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답사일정과 활동방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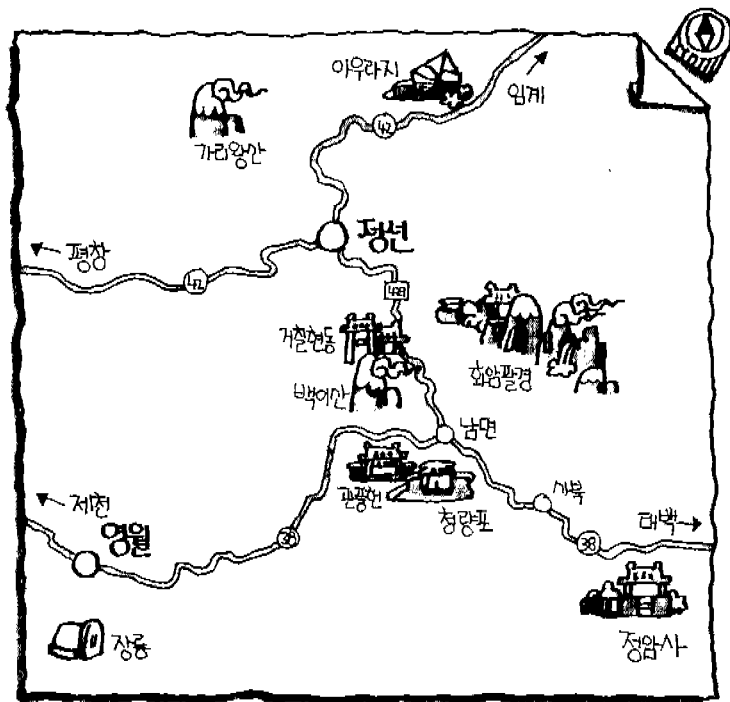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답사시에는 모둠별로 활동하고 점검한다.
- ▶ 답사 장소로 이동 중에도 주변경관에 유의하고 답사장소에 관련된 주제로 게임이나 토론을 한다.
- ▶ 모둠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남긴다.
- ▶ 답사장소를 떠나기 전에 활동을 정리한다.

끝맺음과정

- ▶ 답사가 끝난 후에는 강원도의 위치적 특성과 그 속에서 이루어 낸 삶의 모습에 대해 토론한다.
- ▶ 돌아온 후에는 기행문집 발간이나 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정선 - 영월



정선·영월

태백산맥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정선은 사방으로 산이 겹겹 넘쳐

난다. 증봉산, 문래산, 청옥산, 함백산 등 1,000m가 넘는 산도 많다. 여러 산에서 흘러내린 수많은 갈래의 물줄기가 조양강을 이루고 조양강은 다시 서쪽으로 흘러 남한강의 상류줄기가 된다. 이렇듯 산과 물이 풍부한 정선의 자연환경은 일찍부터 정선만의 독특한 삶과 문화를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되었다. 겹겹이 펼쳐지는 첩첩산중이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비쳐지지만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아닌 곳이다. 경북궁을 지을 때는 태백산맥 깊은 곳의 목재를 남한강 물길따라 서울로 운반하던 뗏목터로 이름을 떨쳤다. 이는 정선의 자랑거리인 아라리의 내력과 큰 관련이 있다. 정선은 아직도 사북과 고한의 탄광촌이나 험악한 비행기재를 연상하는 국토의 심장부이지만 탄광촌도 폐광으로 인하여 탄가루 날리는 것이 덜하다. 여량의 아우라지는 어여쁜 산촌의 강마을과 순진무구한 자연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영월은 단종의 애사가 전설로 이어지면서 온통 애조를 띠게 된 역사적 땅이다. 주천강 일대를 비롯한 높은 산과 깊은 골이 만든 곳의 경치가 아름답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정선과 영월은 그야말로 심신산골다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소중한 우리 땅이다. 오래 전부터 그곳에까지 닿아야 했던 선조들의 삶과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정선·영월 주변의 볼거리

아우라지

아우라지는 두 갈래 물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나투라는 뜻이다. 정선 아우라지에서는 구절천과 골지천이 만난다. 작은 내인 두 물줄기가 한데 어우러져 조양강, 오대천을 만들고 좀 더 뚫어진 물줄기는 영월군으로 빠져나가 남한강의 상류를 이룬다. 구절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합수머리의 언덕배기 소나무 숲 속에는 아우라지 처녀상이 있다.

거칠현동

고려의 일곱 충신들이 불사이군의 절개를 고집하며 은거하였다 하여 거칠현동이고 정선아라리의 발상지로도 불려진다.

정암사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로 ‘숲과 골짜기는 해를 가리고 멀리 세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기 짝이 없다’ 하여 정암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며 정암사의 가장 높은 곳에는 마노석을 벽돌처럼 쌓아 만든 전형적인 모전석탑인 수마노탑이 있다.

화암팔경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선군 동면 화암리의 아름다운 경치 여덟 곳 - 화암약수, 거북바위, 용마소, 종유굴, 화표주, 설암, 물운대, 광대곡 - 을 말한다.

청령포

동남북 삼면이 남한강의 지류인 서강의 강줄기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험한 산줄기 절벽으로 막혀있어 유배지로 더할 나위없이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령포에는 금표비와 단묘 유지비가 남아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 있고 단종이 해질 무렵 한양의 궁궐을 바라보면서 시름에 잠겼다면 노산대가 있다.

관풍헌

조선 초기의 동헌터로 청령포에 홍수가 나자 단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었고 이곳에서 사약을 받았다.

장릉

단종의 무덤

정선·영월에서의 중점활동

정선아리랑 속에 스며있는 오지 사람들의 삶의 애환 느껴보기

정선아리랑은 본래 ‘아나리’ 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리랑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아나리란 ‘누가 나의 처지와 심정을 알리’에서 연유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팔도 아리랑 중 정선아리랑만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사북과 고한의 탄광촌에서 느끼는 국토와 지하자원의 개발

정암사 계곡의 열목어

물이 맑고 찬 곳에서만 자라고 있어 정암사가 얼마나 청정한 곳인

- 지를 말해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음
- ▮ 청령포에서 생각해 보는 단종과 사육신
- ▮ 장릉에서 살펴보는 조선 왕릉의 구조

활동자료

□ 강원도

한반도 중부의 동쪽 반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있다. 강원도의 지질은 주로 편마암, 화강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척, 정선, 영월에 걸친 남부지역에는 석회암, 사암, 혈암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편마암 층에는 흑연, 철광 등이 매장되어 있고 석회암 층에는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으며, 혈암 층에는 무연탄층이 있어 우리나라 지하자원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도내에는 일찍부터 채탄, 채광 및 제철, 시멘트, 화학공업 등 광공업이 발달하였다. 지형은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태백산맥이 동해쪽에 치우쳐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교통발달의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이 산맥을 경계로 동쪽지방은 영동 또는 관동, 서쪽지방은 영서라고 부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은 대관령, 진부령, 한계령 등의 고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 태백산맥을 끼고 뽕현상이 발생할 때는 영동과 영서 간에 기온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도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사가 우세하다.

□ 강원도를 살펴보는 또 다른 길

강원도 전체를 둘러보는 길

춘천(향토 공예관·안보회관) — 소양댐 — 오색(온천·약수)
 — 설악산 — 낙산사 — 오죽헌 — 선교장 — 경포대 — 강릉
 — 무릉계곡 — 죽서루 — 태백 산도립공원(황지연못·석탄박

물관) - 태백 - 화암관광지 - 고씨굴 - 장릉 - 청령포 -
원주 - 치악산(향토동물원·구룡사) - 제천

동해안 따라 펼쳐지는 누정과 일출을 찾아가는 길

죽서루 - 척주동해비 - 추암과 해양정 - 낙가사 - 강문동
진포배기 - 방해정 - 경포대 - 해운정 - 선교장 - 허균
생가터 - 낙산사(의상대) - 청간정 - 천학정 - 송지호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동굴을 찾아가는 길

동해 천곡동굴 - 영월 고씨동굴 - 정선 화암동굴

자료 : 답사여행의 길잡이. 1995.

강원도 관광코스. 1996.

활동목표

남해와 동해를 안고 산과 강과 바다와 들판이 알맞게 어울려 풍요롭고 자주적인 생활양식을 이루어 온 경상도 지역을 답사해 봄으로써 내륙 선비들의 보편적인 삶과 민중의 삶의 유형을 찾아본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경상북도 : 불영계곡 - 성류굴 - 주왕산 - 보경사 - 경주
국립공원 - 안동민속촌 - 도산서원 - 영주 부석
사 - 소수서원 - 회방사 - 문경새재

경상남도 : 통도사 - 해운대 - 태종대 - 한려수도 - 축석
루 - 산천재 - 내원사 - 함양상림 - 화림동계곡
- 해인사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둠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둠구성원 전체가 경상도의 위치적 특성과 생활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 ▶ 답사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둠별로 답사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답사일정과 활동방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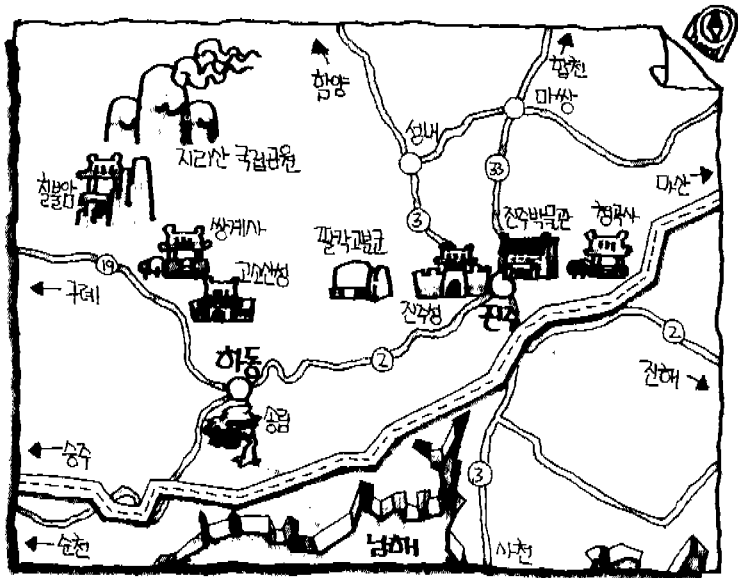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답사시에는 모둠별로 활동하고 점검한다.
- ▶ 답사 장소로 이동 중에도 주변경관에 유의하고 답사 장소에 관련된 주제로 게임이나 토론을 한다.
- ▶ 모둠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남긴다.
- ▶ 답사장소를 떠나기 전에 활동을 정리한다.

끝맺음과정

- ▶ 답사가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경상도의 위치적 특성과 그 속에서 이루어낸 삶의 모습에 대해 토론한다.
- ▶ 기행문집 발간이나 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하동 - 진주



하동·진주

경남의 남서부에 자리잡은 하동은 지리산의 장엄함과 섬진강의 평화스러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북 진안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하동군과 구례군이 만나는 화개면에 이르면서부터 강폭이 넓어져 제법 강다운 모습을 보이며, 하동의 서쪽 경계를 이루기에

이름도 섬진강의 동쪽에 붙은 땅, 곧 하동이 되었다. 화개에 이른 섬진강은 하동송림을 거쳐 남쪽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물길을 일러 ‘하동포구 팔십리’라 한다.

서부 경남의 중심지 진주는 예로부터 ‘부유하고 멋스러운’ 고장으로 알려져 왔고 진주사람들의 정신 면면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단심과 불의에 저항하는 의기가 깃들여 있다. 진주의 역사와 명성에 비해 눈에 띄는 역사유물이나 명승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디를 가나 낮은 산 아래 너른 들판 사이로 강이 흐르는 풍광이 온화하여 마음이 넉넉해진다.

하동·진주 주변의 볼거리

▮ 쌍계사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23년(724)에 의상의 제자 삼법이 눈 쌓인 계곡 위 꽃피는 곳을 찾아 창건하였다. 팔영루는 오랫동안 가곡·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의 하나인 범패 명인들을 배출하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 칠불암

가야의 김수로왕과 인도 아유타 왕국에서 시집온 허황옥 사이에 난 일곱왕자가 출가, 이곳에서 성불하여 부처가 된 것을 기뻐하여 지은 절로 신라의 옥보고는 이곳에서 50년 동안 거문고를 공부하여 신라 음악의 중요한 요람이기도 하였다. 또한 한 번 불을 때면 한달 반 동안이나 따뜻했다던 아자방이라고 불리우는 온돌방 선원도 독특하다.

▮ 고소산성

악양들판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삼국시대에 쌓은 웅장하고 견고한 석성이다.

▮ 하동송림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사신들이 모여앉아 군사동맹을 맺은 곳으로 조선 영조 21년(1745) 당시 부사였던 전천상이 방풍·방사용으로 조성한 곳으로 백사장을 끼고 300년생 소나무 750여 그루가 섬진강 맑은 물과 어우러져 있다.

진주성

남강가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진주성은 임진왜란 때 왜적의 호남 진출을 철통같이 막아낸 성이다. 진주성 북쪽 끝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망루인 북장대는 군사건물의 모범이라고 할 만큼 잘 건축된 망루이다.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건물은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으로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탑의 선을 고건축양식과 조화시켜 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박물관은 선사시대 이래 가야시대의 유물을 집중 전시한 특색있는 가야 전문 박물관이다.

청곡사

신라 헌강왕 5년(878) 도선국사가 창건한 절로 진주 12경 중의 하나인 아산토월의 월아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경내 곳곳에 대숲과 동백이 어우러져 겨울에도 내내 푸르고 절 뒤쪽 산에는 야생 차나무도 자란다.

하동·진주에서의 중점활동

■ 화개 입구의 섬진강과 화개장터의 역사 살펴보기

■ 칠불암의 온돌방 선원에서 알아보는 온돌구조와 온돌고래의 종류

■ 고소산성에서 바라다 보는 토지의 무대 평사리 마을

■ 진주성에서 다시 느껴 보는 임진왜란

■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다시 알아나는 가야문화

활동자료

□ 경상남도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있는 경상남도는 북쪽에는 경상북도가, 서쪽에는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남쪽에는 남해가 동쪽에는 동해가 자리잡고 있어 위치에 따른 특성을 보

이고 있다. 서북쪽 땅은 소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남동쪽 땅은 바다에 둘러싸여 고립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말과 민속을 지니고 자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왔다. 또한 이곳의 한복판을 흐르는 낙동강 일대의 드넓은 분지와 충적평야로 이 기름진 땅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몰려있고, 바다와 맞닿은 남동쪽에는 입지조건이 좋은 항구가 있어 교통을 편리하게 해주고, 상공업의 발달을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동해 남부 해안과 남해안에 난류와 한류의 이상적인 흐름으로 수산 자원이 넉넉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어업이 융성할 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드넓은 산지에서 다양한 임산물이 난다. 이처럼 경상남도는 산과 강과 바다와 들판이 알맞게 어울려 경치가 아름답고 산수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운택한 삶을 보장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봉의 지리산, 산업의 젖줄인 낙동강, 청정한 남해와 동해의 바다는 이곳 사람들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특징지었다.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동쪽 지역은 좁고 길게 평야가 이루어진 동해안을 빼놓고 나면 거의가 태백산맥의 영향이 미친 산지이고 산들이 바다에 바짝 붙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리기 때문에 동해안 쪽 하천의 물길은 자연히 급하고 짧다. 그러나 이곳의 하천들은 맑고 옥피천과 남대천은 그 언저리에 울진평야를, 오십천은 영덕평야를 만들었다. 그리고 포항시와 경주시를 이으며 흐르는 형산강은 비록 작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이 지방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어 왔다. 이 강은 상류쪽에 선상지를 이루어 그 위에 신라 천년 문화의 중심지인 경주가 설 수 있도록 했고 경주와 포항에 생활용수를 대주고 포항제철소에 공업용수를 대준다.

□ 경상도를 살펴보는 또 다른 길

고분과 궁궐을 찾아 신라 천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
태종무열왕릉 — 김유신묘 — 노동동 고분군 — 첨성대 — 계림 — 석빙고 — 안압지 — 국립경주박물관 — 포석정 — 진평왕릉 — 성덕여왕릉 — 신문왕릉 — 괘릉

석탑을 찾아가는 길

감은사터 삼층석탑 — 장항사터 오층석탑 — 석가탑·다보탑 — 무영탑(영지) — 분황사석탑 — 황복사터 삼층석탑

은둔과 저항의 현장을 찾아가는 길

함양 화림동계곡의 정자 — 박지원 사적비 — 정여창고택 — 상림과 학사루 — 단속사터 — 남명 조식의 유적 — 진주성 — 하동 청학동 — 고소산성과 평사리

자료 : 한국의 발견 : 경상남·북도. 1992.
답사여행의 길잡이 2·6. 1995.

국가사랑활동 영광

나라의 힘 정치
나라의 원동력 경제
민족의 삶의 흔적 사회
민족의 지혜와 꿈 문화

나라의 힘 정치

활동목표

정치는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위이다. 우리의 정치는 왜곡된 질곡의 세월을 스쳐왔다. 정치의 흔적을 찾아 봄으로써 국가사랑의 초석이 되는 바람직한 정치문화의 미래를 조망한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충북부강의 초정약수(세종) - 영월(단종유배지) - 경기도 광주(해공 신익희의 묘소) - 수원의 건릉(정조의 묘소) - 강화(연산군의 유배지) - 청와대·한강고수부지·여의도 (현대 정치의 터전)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듬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듬별로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을 글이나 그림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발표한다.
- ▶ 모듬별로 답사지역의 정치적 의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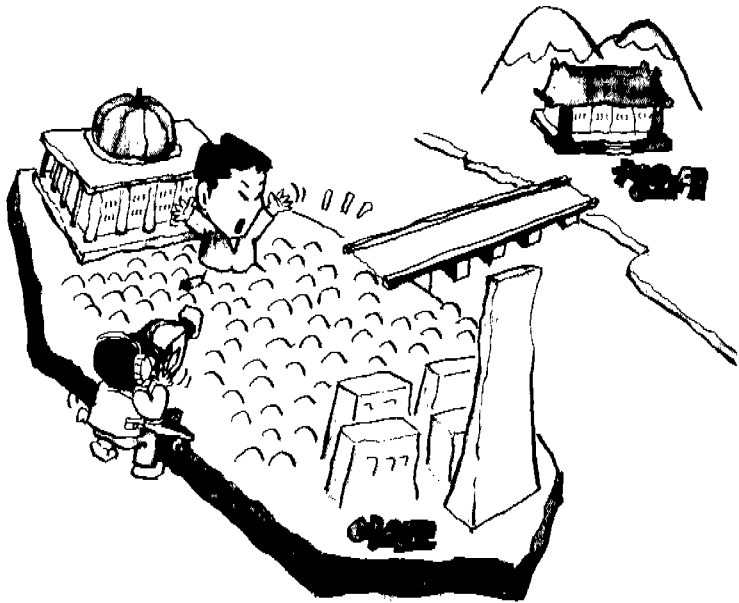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답사지에서는 관련되는 사항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그림으로 작성하여 답사지역의 정치적 의미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든다.
- ▶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대해 토론하고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끝맺음과정

- ▶ 여행이 끝난 후에는 모듬별로 이상적인 정치사회의 형태를 토론한 후 대표가 나와 이상적인 나라의 정치적 전망에 대해 응변한다.

□ 소활동로 : 청와대와 한강고수부지 그리고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와 여의도

현대정치 of 물결이 세차게 몰아치고 마치 임금처럼 여겨지는 대통령 되기 위한 노력은 능력만큼 대중에게, 자기의 모습을 얼마나 잘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또 하나의 관전으로 삼았다. 한강변은 정치인의 대중연설의 장이었다. 한강백사장으로 표현되는 한강변의 맑은 한강물결 속에서 수 십만 명의 유권자를 앞에 놓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약에서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약까지 언제나 장미빛 꿈이 되어 잠시나마 유권자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또 그 환희와 열정의 도가니속에서 나온 허탈감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의도로 옮겨지게 되었다. 맑은 유구하지만 국민을 설

득하는 방법은 변한 여의도에는 행복한 인생을 보장하기라도 하듯이 국회의사당이 세워지고 세련된 언론사가 곳곳에 위용을 떨치고 있다. 고작 군용비행장으로 쓰였던 넓은 모래 벌판에 여의도광장이 마련되고 보무 당당한 군인들의 모습위에 엄청난 약속으로 무장한 정치인들 종교인들의 말의 성찬이 끊이질 않았고, 이제는 바람막이 없는 허허벌판이 아닌 방송국의 세련된 기계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정치를 이끌어 보고 매력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정치인들과 정치지망생의 땀방울이 다리 건너 청와대에 쏠려있지만은 아닐 것이라 굳게 믿고 다함께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를 지켜보는 감상아닌 감상의 땅과 건물로 변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인왕산아래 경복궁뒤에 있다. 단지 대통령이 사는 곳이 아닌 우리 정치의 핵심지역이고 상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나라사랑의 일번지이다. 그 곳이 편안하면 국가가 편안하고 더불어 국민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활동자료

□ 세종

세종(1397~1450 재위기간 1419~1450)은 3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인자와 위엄을 겸비한 현군으로 평가받았다. 세종은 총명만을 믿지않고 중요한 책은 100번씩 읽어 그 뜻을 완전히 터득하는 정진을 거듭하여 호학의 군주로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다. 세종은 남다른 우애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소와 자애로 대했기 때문에 궁궐의 창고에는 늘 물품이 남아돌았고 세종이 즉위해 있는 동안 큰 옥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세종은 정치와 학문에 있어서도 위민과 창의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농사직설을 짓게하였으며 우리의 향악을 모아 후세에 전하게 하였고 여러 과학기술을 개발

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중국에 인삼의 효용성을 알리어 금·은·말 등을 인삼으로 바꾸게 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현명하고 인자했던 세종도 심약하고 병약했던 그의 맏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단종애사를 예견하지는 못했다.

□ 단종

세종의 손자 단종(1441~1457 재위기간 142~1455)은 12세 되던 해 문종이 재위 3년만에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다. 이듬해 첫째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정인지, 한명회, 권남 등과 결탁하여 단종을 보필하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을 암살하고 그의 심복들로 하여금 요직을 장악하게 한 후 단종을 물려나도록 하였다. 어린 단종은 어쩔 수 없이 즉위 3년만에 왕위를 세조에게 빼앗기고 상왕이 되었다. 그 이듬해(1456) 세종으로부터 단종을 보살필 것을 당부받았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이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처참히 죽고 이 사건으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영월 청령포에 유배된다. 삼면이 큰 강으로 단절되고 한 면은 절벽이라 한번 들어오면 스스로 빠져나가기 힘든 청령포에서 한 동안 거처했던 단종은 넷째 작은 아버지인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된 일이 생겨 서인으로 강등되고 1457년 10월 죽임을 당했다. 이 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이후 죽은 지 200여년 만인 1698년에 단종으로 복위되었으며 능호도 장릉이라 하였다.

□ 정조

정조(1752~1800 재위기간 1777~1800)는 18세기의 어려운 시대상황에서 마흔 아홉 길지 않은 생을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정조는 열살의 어린 나이에 사도세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시파와 벽파 사이에서 시달리다 영조가 여든 셋의 나이로 파란많은 생애를 마치자 정조는 왕위에 오른다. 그가 왕위에 올라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를 추존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받들고 벽파인 홍인한 정후겸 등을 귀양보냈다. 그는 일단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규장각 설치를 서둘렀다. 각신이라는 이름의 이들 근신에게 규장각에서 연구에 몰두하게 했다. 특히 각신 중 정약용에게 쏟은 정조의 관심은 특별한 것이었다. 정조는 당색을 초월하고 지역감정을 어루만지고 차별받는 신분층을 거두어 들였다. 또한 정조는 문화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현실개혁의 이론을 내놓은 실학자들의 글을 많이 탐독했다. 문풍의 진작을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하려는 행동과 의지를 보여 주는 한편 수원에 있는 아버지의 능을 철따라 참배하여 지극한 효성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14년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 혁신정치를 펴보려 했지만 보수세력의 견제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 연산군

연산군(1476~1506 재위기간 1494~1506)은 성종과 숙의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던 해 윤씨가 왕비로 책정되자 연산군에 책봉되었으며 1479년 윤씨가 폐출된 후 5년만에 1483년 8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죽자 19세의 나이로 조선 제10대 왕으로 등극했다. 왕위를 이어받은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겪기 전까지는 폭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즉위초에는 성종조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고 인재가 많았던 덕분에 민간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산군의 이 4년 동안의 치세는 오히려 성종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퇴폐풍조와 부패상을 일소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등극 6개월 후에는 전국 모든 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민간의 동정을 살피고 관료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또한 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별시문과를 실시하여 33인을 급제시키고 변경지방에 여진족의 침입이 계속되자 귀화한 여진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회유하게 하여 변방지역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 문화정책에서도 문신의 사가독서(유능한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

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를 다시 실시하여 학문의 질을 높이고 조정의 학문 풍토를 새롭게 했으며 세조 이래 3조의 〈국조보감〉을 편찬해 후대 왕들의 제왕수업에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4년동안 연산군은 누치에 걸쳐 명분과 도의를 중시하는 사림과 관료들과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이때 일어난 것이 무오사화로 연산군은 무호사화를 통해 집요한 간언으로 자신과 대립했던 사림세력을 추출하는 한편 일부 훈신세력까지 제거하게 되었고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연산군은 급속도로 조정을 독점하게 되고 매일같이 향연을 베풀었고 모자라는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공신전을 강제로 몰수하려 했다. 이 때 정권을 장악하려던 임사홍은 폐비윤씨사건을 연산군에게 밀고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갑자사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는 막상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되자 문신들의 직간이 귀찮다는 이유로 경연과 사간원, 홍문관 등을 없애버리고 훈민정음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광적인 폭정을 일삼았다. 급기야 1506년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하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산군 폐출이 성공하자 박원종 등은 연산군을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강화도에 유배시켰는데 두 달 뒤 인륜과 민심을 배반한 독재자연산군은 3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 신익희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 해공 신익희(1892~1956)는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에서 태어났다. 신립장군의 10대 손인 해공은 10세 전에 사서삼경을 읽었고 특히 그의 글솜씨는 뛰어났다. 해공이 새로운 문화와 교육을 받고자 보통학교에 들어간 것은 12세 때의 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던 해였다. 1908년에는 한성 관립 외국어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당시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로 전학하였다. 해공이 일본에 유학 간 것을 계기로 정치에 뜻을 둔 이후 1956년 5월 5일 서

거할 때까지 40여 년을 정치 속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제일 통일단체 학우회를 결성하여 잡지 〈학지광〉을 발행하고 국내에서는 축구단 조직을 기화로 항일 청년단체의 바탕을 만들기도 했다. 1913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해공은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지만 1917년부터는 보성법률상업학교에서 비교헌법 등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해공이 본격적으로 항일운동에 가담한 것은 1918년 6월부터 송진우 최남선 등과 비밀회담을 가져 독립운동의 방법을 토의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45년 환국에 이르기까지 중국각지를 왕해공이라는 이름으로 장개석 총통이나 그 밖의 인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환국이후는 정치공작대 정치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반공전선에 나섰고 1946년에는 독립촉성국민회를 결성하여 부회장이 되었다. 국민대학을 창설하여 학장에 취임하고 그 여름에는 자유신문사 사장에 취임했다. 1948년 1950년 1955년 선거에서 고향인 광주에서 3선되었고 제헌국회 이래 국회의장직을 계속 역임했다. 1956년 그는 한강 백사장에서의 유세로 국민의 신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서함으로써 국가적 민족적 손실을 남겼다.

자료 :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1996.

이야기 인물한국사. 1996.

인물 한국사. 1993.

나라의 원동력 경제

활동목표

나라의 힘은 경제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는 과학의 발전에 영향받는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원동력인 공업단지와 연구단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연과 과학과 인간이 이루어내는 나라의 힘을 느끼고 나라사랑의 기초를 마련한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공단코스 : 태백산공업단지 - 포항종합제철단지 - 울산공업단지 - 거제조선 공업단지

과학코스 : 대덕연구단지 - 엑스포과학공원 - 고리원자력발전소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둠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과 과학발전 상황에 대해서 모둠별로 자료조사를 한다.
- ▶ 답사할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 ▶ 모둠별로 답사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답사일정과 활동방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여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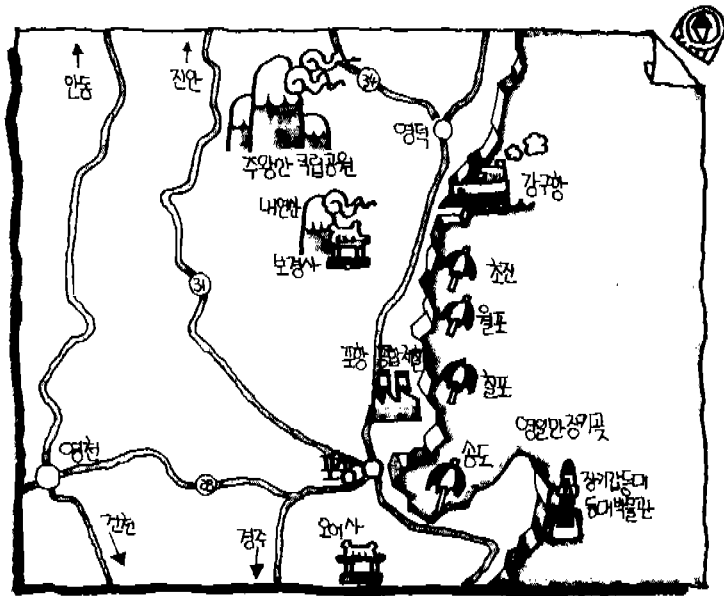
- ▶ 답사시에는 모둠별로 활동하고 환경과의 관계도 생각한다.

- ▶ 모둠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남긴다.
- ▶ 답사장소를 떠나기 전에 활동정리를 한다.

끝맺음과정

- ▶ 답사가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와 과학 발전상황의 특성과 미래에 대해서 정리한다.
- ▶ 돌아온 후에는 기행문집발간이나 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포항



포항종합제철단지

칠십년대에 포항시가 맞이한 변화 중 으뜸가는 것으로 뽑히는 포항 종합제철단지는 형산강을 낀 남쪽 땅 이백칠십만평에 자리를 잡고 1970년부터 꼬박 11년 동안에 걸쳐서 완공되었다. 제철 산업은 기계 금속 선박 자동차 건설 같은 굵직한 산업들의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방위산업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산업이다.

포항종합제철단지 주변의 볼거리

영일만 장기곶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으로 우리나라를 호랑이 형상에 비유할 때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장기갑 등대 박물관에는 ‘장기갑 호미등 유래비’가 세워져 있다. 벽돌만으로 만든 장기갑 등대는 크기와 건축기술에서 감탄을 자아낸다.

내연산 보경사

포항의 북쪽 동해와 인접한 지점에 우람하게 솟아있는 해발 930m의 내연산은 신라 때의 명찰 보경사와 10km에 이르는 수려한 계곡을 지닌 명소이다. 내연산은 원래 종남산이었으나 신라 진평왕이 견훤을 피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내연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강구항

영덕 대게가 나는 항구로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가 산다.

청송 주왕산

산간 오지에 불쑥 솟아오른 주왕산은 태백산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산으로 아름다운 계곡과 하늘을 치받는 듯한 암봉과 기암괴석으로 유명하다. 주방천을 지나 만나는 대전사에서 바라보는 주왕산은 한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활동자료

□ 살아있는 삶의 현장 장터를 찾아서

강화장

강화의 장날은 매달 2일과 7일이다. 인삼과 화문석이 주종을 이룬다. 왕골로 섬세하게 짜여진 솜씨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인천 소래장

선창가 입구부터 진풍경을 이루는 파시는 비릿한 갯내음으로 더욱 흥이난다.

충남 광천장

토굴안에 넣어 숙성시킨 새우젓으로 유명하며 장날은 4일과 9일이다.

담양죽물시장

매달 2일과 7일에 열리는 담양죽물시장에는 죽제품 일색이다. 읍내에 있는 죽물박물관에 들려 고대와 현대의 전통 죽제민예품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전남 니주장

니주 장날은 4일과 9일로 다른 장터에 비해 장옥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전남 구례장

지리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잡은 구례에서는 3일과 8일에 5일장이 선다. 각 종 산나물과 산수유, 토종꿀, 작설차 등이 있어 향긋한 내음을 들이마실 수 있어 후각이 즐겁다.

경남 창녕장

양파와 고추의 산지로 유명한 창녕장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장터와는 달리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창녕장의 장날은 3일과 8일로 물건들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 홍천장

매달 1일과 6일에 장이 서는 홍천장에는 산을 끼고 있기 때문인지 잣 밤 등과 버섯 인삼 등이 풍부하다.

자료 : 어디가서 조용히 생각하다 돌아오고 싶다. 1993.
주제가 있는 여행. 1996.

민족의 삶의 흔적 사회

활동목표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문화와 생활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처럼 사회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지역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서울 - 수원 - 청주 - 대전 - 전주 - 대구 - 창원 - 광주 - 부산 - 강릉 - 춘천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듬구성은 5명내외로 한다.
- ▶ 모듬별로 우리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고 발표한다.
- ▶ 모듬별로 답사지역을 선정하고 모듬구성원 각자가 관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역할을 분담한 후 준비물을 마련한다.
5명이 한 모듬이라면 1)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환경 2) 사람들의 성향과 특성 3) 유행과 문화의 독특성 4) 지리적 환경적 여건 5) 지역의 역사와 물리적 환경 등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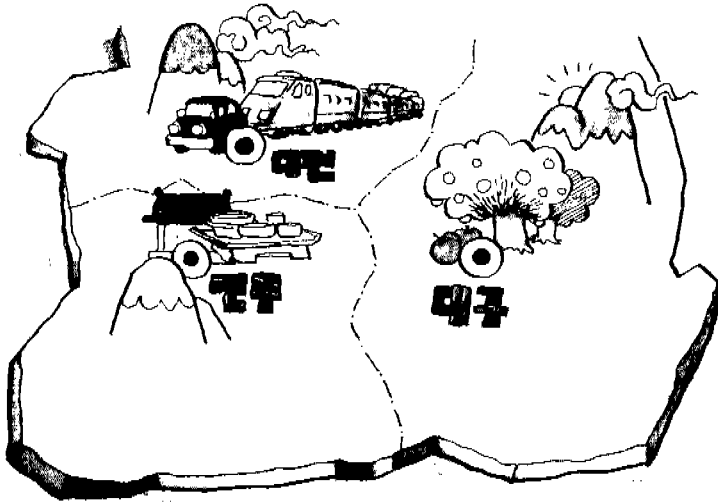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답사지에서는 모두 구성원 각자 맡은 역할대로 관찰하고 글과 사진이나 그림으로 기록한다.
- ▶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과 사회구성 요인들에 대해 토론한다.

꽃맺음과정

- ▶ 여행이 끝난 후에는 모둠별로 기록한 각 지역사회별 특징을 모아 자료로 꾸며 전시회를 갖고 모듬의 대표가 나와 여행지역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 소활동로 : 대전 - 전주 - 대구



대전·전주·대구

대전은 한밭이다. 한반도 남쪽을 등뼈와 같이 지나는 경부선이 1905년에 개통되면서 대전이란 도시가 탄생하였다. 그만큼 대전과 철도역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리는 대전은 역을 중심으로 변화가 형성되었다. 대전역과 마주보고 있는 도청의 사이를 잇는 중앙로와 그 길 가운데 흐르는 대전천은 대전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주는 맛과 멋 그리고 향기의 고장이다.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이면

서 제법 변화한 중심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문화예술의 도시답지않게 거대한 문화시설과 장소가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집안 곳곳이 숨어있는 문화의 향기는 젊은이들의 옷차림과 모양새에서 어색하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는 항상 춥지 않으면 덥다. 내륙분지인 까닭에 봄과 가을이 유난히 짧은 대구는 화려하다. 무수히 산재해 있는 섬유공장의 불빛만큼 대구의 변화가는 번잡하다. 전통적인 세도가의 지방답게 사람들은 분주하지만 여유있다. 마치 경상북도 중남부지방의 도시는 서울보다 대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만큼 아파트와 도심 그리고 점차 뻗어가는 위성도시가 점점이 보이는 옛 사과의 고장이다.

활동자료

□ 춘천

강원도 도청소재지로 교육과 상업의 중심지인 춘천시는 흔히 호반의 도시로 불리운다. 그 말이 가리키듯이 이곳은 폭이 500m 가 넘는 의암호를 서쪽에 끼고 삼악산, 국사봉, 안마산, 청평산, 우두산이 서로 꼬리를 물고 둘러싼 태백산맥 서쪽의 침식분지에 물에 잠길듯이 길게 누워있다. 공지천은 육십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에는 전국빙상대회가 열렸던 곳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공지천은 두껍고 매끈하게 얼어붙어서 이곳 사람들은 세살박이도 스케이트를 탈줄 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릴 적부터 스케이트 타기를 즐겨했으며 국가 대표 스케이트 선수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소양댐을 만든 뒤로는 겨울이 되어도 잘 얼지 않아 마음놓고 스케이트를 탈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춘천지방의 별미음식인 막국수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 청주

충청북도 도청이 자리잡고 있는 청주시는 ‘교육도시’ ‘깨끗하고 맑은 도시’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공업화의 영향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과제로 주어졌다.

□ 창원

넓디 넓은 남쪽 들판에 한 해 내내 햇빛이 내리쬐어 김해 다음 가는 곡창지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조그마한 면소재지가 기계소리 요란한 도청 소재지로 바뀌었다. 팔십년대의 공업한국을 상징하는 세계 최대의 기계공업전용 임해 특수공업단지로 개발된 땅으로 ‘정밀공업 진흥의 탑’이 버티고 서있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계획도시답게 도청이 들어서자 공공기관들이 옮겨와 경상남도 행정의 심장 구실을 하게 되었지만 이 도시의 주인공인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리며 사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강릉

대관령의 신령이 지키는 도시인 강릉은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불리운다. 강릉시를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이고, 시의 꽃은 해당화, 시의 나무는 소나무이다. 영동지방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타지방 사람들까지 모여 성황을 이루는 강릉 단오제는 이곳의 문화가 마련한 한 바탕 큰 잔치이며 아울러 그 예능이 무형문화재로서 이곳의 문화재를 대표하는 잔치이다. 강릉시의 동북쪽 분지는 동쪽으로 거울같이 맑은 경포호를 안고 바다로 열려있다. 경포호와 경포대, 오죽헌, 선교장 등 경관지역, 사적지역, 민속자료지역, 해수욕장이 겹쳐있는 이곳은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 부산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로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자리잡아 태평양을 안고 있는 국제 무역항이다. 금정산과

그 일대를 포함해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녹지와 드넓은 삼각주, 습지를 지닌 낙동강, 항만과 항만 사이로 돌출날쭉한 해안, 그리고 부산의 항구 기능을 높여 주는 영도는 부산시가 다양성을 지닌 도시임을 설명해 준다. 이 도시는 이러한 입지조건과 더불어 나라 안팎의 영향을 받아 국제 무역항, 상공업 도시, 그리고 수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여러구실을 하며 발달해 왔다. 부산이 본디의 자연환경과 제 모습을 잃고 급속한 탈바꿈을 한 것은 1876년 개항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끈질기게 눌러 댄으로써 부산항이 개항되었고 개항과 더불어 건너온 일본 사람들이 부산의 땅 모양을 바꾸었고 환경과 그 기능에 까지 큰 변화를 일으켜 놓았다. 개항 무렵의 부산은 산악이 바다에 급박한 지세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초량 북쪽의 얼마 안되는 평지를 빼고는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땅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걸쳐 계속된 제국주의 일본의 광대한 매축공사 추진으로 부산의 바다와 땅 모양이 바뀌었고 뜻때 한 채 매어두기 어렵던 곳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의 근대적인 발전이 일본의 침략속셈에서 비롯된 것처럼 어촌에서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은 그 모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공해에 병든 땅이 되고 말았다. 부산은 바다와 강과 내 그리고 보기 좋을 만큼 높은 산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 사람의 명줄인 내가 썩고 바다와 강도 오염되었고 푸른 녹지도 개발의 손길에 밀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부산의 사회 풍토가 상업주의 물량주의의 성격을 띠므로써 주민들의 생활감각이나 의식은 저절로 매우 현실적이고 적응능력이 뛰어난 것이 되었다. 부산의 사회문화적 특징 중의 또 하나는 국제항구도시로 외래문물과의 접촉과 교류가 빠르고 시민의 생활문화나 사회문화가 직접간접으로 그 영향을 쉽게 받고 있다. 부산에는 또한 한국팔경에 드는 해운대를 비롯하여 태종대와 동래온천이 있고 해변을 따라 해수욕장들이 펼쳐진 데다가 근교에 명승고찰들을 끼고 있어 관광도시로서의 조건도 좋아 부산에 몰려드

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다. 끝으로 부산사회의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부산시민들의 출신지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화롭게 융합하여 살면서 새 문화를 꽃 피운 곳이라는 점이다.

□ 광주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인 광주시는 인구 수효로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이지만 한반도의 남쪽을 부산과 더불어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삼한시대에 특히 가무를 즐겼다는 옛 마한 사람들의 후예답게 광주사람들은 풍류를 즐긴다. 그리고 이 풍류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이 광주의 얼굴같은 산업이다. 그리고 전 사회가 매일 열릴만큼 고급 생활문화의 생산이 왕성하다. 이런 고급 문화의 생산 뒤에는 광주의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그 원료를 생산하는 이름난 장인들의 전통도 있다. 그리고 이런 풍류는 소수의 양반들만의 취미가 아닌 모두에게 두루 퍼져있던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이는 넓은 농토에서 얻었던 넉넉한 살림 때문이 아니라 풍류를 생활화하고자 했던 이 곳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관 때문이었을 듯 싶다 .

자료 : 한국의 발견. 1992.

민족의 지혜와 품 문화

활동목표

우리 민족의 독특한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 낸 민족문화의 여러 원형들을 살펴봄으로써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의 계승 발전을 위한 안목을 기른다.

활동과정

☐ 대활동로

원림코스 : 비원 - 광한루원 - 소쇄원 - 다산초당 - 부용동 원림

문학코스 : 백담사 - 봉평 - 단양 도담삼봉 - 안동 인각사 - 청송 주왕산 - 진주 남강 - 하동 섬진강 - 장흥 천관산 - 진도 윤림선방 - 고창 선운사 - 부여 금강

서원코스 : 자운서원 - 충렬서원 - 덕천서원 - 도동서원 - 옥산서원 - 도산서원 - 소수서원

☐ 활동단계

준비과정

- ▶ 한 모듈구성은 10명내외로 한다.
- ▶ 모듈별로 우리 민족문화의 여러 원형에 대해 조사한다.
- ▶ 답사코스를 정한 후 모듈별로 답사시 살펴보아야할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 답사일정과 활동방법을 정하고 준비물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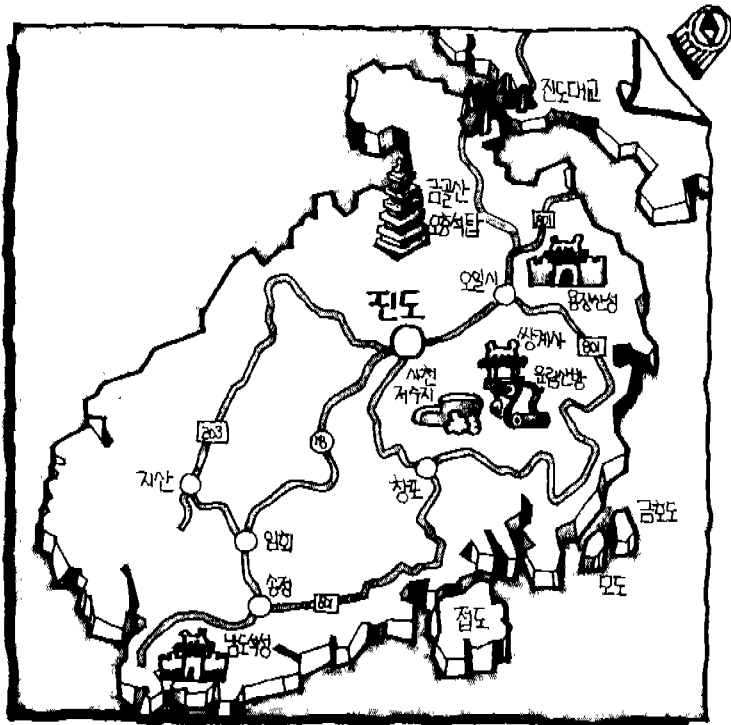
여행과정

- ▶ 답사중에는 문화유산에 깃든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모듬별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남기고 시대마다 달리 독특하게 피어난 문화의 시대적 특성에도 유의하여 살펴본다.

끝맺음과정

- ▶ 답사가 끝난 후에는 토론시간을 마련하여 문화의 시대적 특성을 정리하고 문화의 계승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 ▶ 토론이 끝난 후에는 문화기행문집 발간이나 문화사진전을 계획한다.

□ 소활동로 : 진도



진도

진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민속의 보고로 불릴만

큼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예향이다.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셋김칫, 다시래기 네 종목이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진도만가와 북놀이가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기능을 보유했던 인간문화재도 10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그림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진도사람들의 기질과 분위기는 기롭지고 넉넉한 살림살이에서 오는 정신적 풍요와 오랜 세월 사나운 물살로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있지만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 바닷길의 길목이자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길목에 자리잡은 까닭에 고대로부터 진도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경험들과도 관계가 깊다. 한편 진도는 고려시대부터 유배지로 이용되었는데 당시의 귀양객들은 대부분 중앙 정계의 당파싸움에서 밀려난 양반 식자층으로 학문과 사상이 깊은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노래나 글 그림으로 실의의 시절을 달랬고 서당을 열거나 개인적 교분을 통해 진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소양을 전파함으로써 오늘날의 서화예술이 발달한 진도 문화를 낳았다.

진도 주변의 볼거리

■ 금골산 오층석탑

고려시대 말에 세워진 이 탑은 백제 탑의 양식을 이어받은 것으로 백제계 석탑양식이 이곳까지 전파되었음을 보여준다.

■ 용장산성

주로 석성이지만 토성이 섞인 곳도 있다. 이 안에 있는 용장성은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해 제주도로 퇴각하기까지 항몽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 윤림산방

조선후기 남화의 대가 허련이 만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거처하며 그림을 그리던 화실의 당호로 한국 남화의 성지로 불린다.

■ 남도석성

동그런 성벽과 동·서·남문이 거의 그대로 있으며 서문 양옆에 밖으로 튀어나온 치가 남아 있다. 성안에는 민가가 수십호 들어차 있고 마을 사람들은 오늘날도 옛 성문을 통해 출입한다. 남도석

성 남문 앞으로 흘러가는 개울 위에는 쌍홍교와 단홍교가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편마암 자연석재를 사용하여 홍교를 놓은 것은 특이한 양식이다.

진도에서의 중점활동

- ▮ 그림과 노래와 민속이 가득한 진도의 무형문화재 살펴보기
강강술래·남도돌노래·씻김굿·다시래기·진도 만가와 복놀이
- ▮ 음력 2월달 전후의 영등살에 얹힌 전설과 축제 알아보기

활동자료

□ 진도아리랑

진도의 노래 가운데 가장 널리 불리면서 다른 여러 노래나 놀이의 바탕격이 되는 것이 진도아리랑이다. 시나위 가락의 앞소리와 자진모리 장단의 후렴으로 이루어진 진도아리랑은 때로는 처연하고 유장하게 때로는 능청능청 휘감기거나 신이 나서 날뛰면서 또 때로는 왈각 쏟아져 나오는 듯 부르는 사람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색깔을 띠며 갖가지 삶의 주름살을 훑어냈다. 혼자서 길게 뽑아 부를 때는 신세타령이 되고 여럿이 목을 합쳐 부를 때는 삶의 응원가가 되었다. 진도아리랑의 가사는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것이 많지만 즐거움과 애닦음 익살과 한탄 등 전반적인 생활감정을 담은 가사도 수없이 많다.

□ 진도씻김굿

진도씻김굿은 경상도 지방의 오구굿이나 서울의 지노귀굿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다. 씻김굿이라는 이름도 죽은 사람이 생전에 풀지 못했던 소망이나 원망 등 한이 될 것들을 씻어낸다는 데서 나왔다. 진도씻김굿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 72호로 지정되어 있다. 씻김굿에는 굿을 하는 시기와 경우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꼭머리

씻김굿은 초상이 났을 때 직접 시신 옆에서 하는 굿인데 시신 옆에서 하므로 진씻김이라고도 한다. 소상 씻김굿은 죽은지 일 년되는 소상날 밤에 하는 굿이며 대상 씻김굿은 탈상씻김이라고도 하는데 초상난지 3년 뒤인 대상날 밤에 하는 굿이다. 영화 씻김굿은 경사굿이라고도 하며 조상 중 어느 분의 비를 세울 때 그 조상의 넋이 영화를 누리라고 하거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조상을 모두 불러 은덕에 감사하는 굿이다. 씻김굿은 세습무당인 당골이 주재하며 한밤중에 시작해서 그 밤을 꼬박 새고 새벽까지 계속된다. 다른 지역 무당들이 화려한 무복을 입고 작두를 타기도 하며 춤이나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데 반해 진도 당골들은 소복을 입고 한지를 오려서 만든 냇전을 들고 굿을 한다. 씻김굿의 전과정은 노래로 시작되어 노래로 끝난다고 할만큼 줄 끝 당골의 노래 속에서 진행된다. 세습무인 당골은 굿의 노래와 사설, 춤을 평생보고 익힌 전문예술인이다. 진도 씻김굿 노래는 1979년 세계민속음악제에서 금상을 받았다.

□ 남도들노래

섬이지만 농토가 많고 땅이 걸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진도에서는 섬 전역에 멋진 들노래가 풍성하게 퍼져 있었다. 논일하며 부르는 소리로는 못자리에서 모를 찌낼 때 부르는 모뜨는 소리, 모 심을 때 부르는 상사소리, 논 김매 때 부르는 절로소리, 그리고 아침 일찍 두레패가 한 곳에 모여 논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행진곡처럼 부르는 길꼬냉이 등 일의 과정에 따라 각각의 노래가 있었다. 들노래는 대개 30~40명 안팎의 남녀 두레가 함께 일을 하면서 선 소리꾼이 소리를 맥이면 다른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식으로 부르며 작업 과정마다 각각 해당하는 노래를 징 패과리 북 장구와 못방구 장단에 맞춰 쉬지 않고 불렀다. 진도들노래는 가락이 다양하고 듣기만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일 만큼 흥겨운데 가사는 주로 임을 그리거나 원망하는 내용이나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거나 충효심을 북돋우거나

부지런히 일하자는 내용이다.

□ 다시래기

다시래기는 출상 전날 밤에 마을 사람과 상두꾼들이 상가에 모여 상여를 꾸미면서 마당에서 벌이는 일종의 소극이다. 상주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이런 놀이를 하는데 다시래기 또는 다시락이란 ‘다시놓다’ ‘다시 마음을 먹다’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겁게 논다’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한다. 다시래기는 진도를 중심으로 한 섬 지방에서 주로 전승되며 백제 때부터 있던 풍습이라고 전해진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된 진도다시래기는 신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다시래기패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다시래기를 하는 사람은 모두 남자이며 순서는 사당놀이, 사재놀이, 상제놀이, 봉사놀이 그리고 상여놀이로 이어지는데 줄곧 풍물장단과 노래 춤 재담을 통해 진행되며 연극성이 짙다.

자료 : 답사여행의 길잡이 5. 1995.

II. 응용과정

숨쉬는 갯벌
제주도 사랑
한민족 나라

□ 활동개요

떨떨때면 수많은 갯벌 생물들을 토해내는 갯벌에서 갯벌생물 탐사, 갯벌의 형성과정, 갯벌의 생태, 갯벌의 기능 등을 살펴봄으로써 갯벌 생태계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국토의 중요성과 국토이용 및 보존 그리고 국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다.

□ 활동일정

얼마나 : 이틀 밤과 사흘 낮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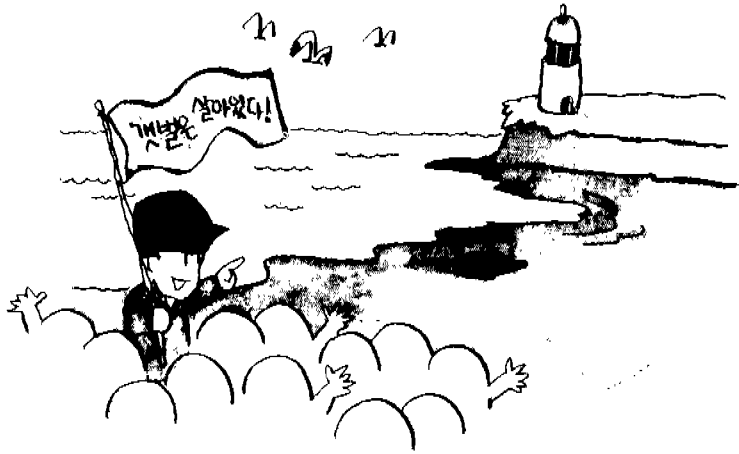
어디서 : 갯벌에서 (김제 심포 갯벌)

누구와 : 30명 내외의 친구들과

□ 활동일정표

시간	만남의 날	화합의 날	믿음의 날
06:00		°숨쉬는 갯벌°	바다와의 산책
07:00			
08:00		°갯벌에서의 아침°	아침을 맛있게
09:00			
10:00	다함께 모여	°보여지는 것과	°갯벌 스키°
11:00		보여지지 않는 것°	
12:00			
13:00		점심도 갯벌에서	아쉬운 점심
14:00	무사히 도착		°갯벌을
15:00	°갯벌과	°환경 파괴의 끝°	가슴에 안고°
16:00	친해지기°		호뜻한 마음으로
17:00			집 으 로
18:00	저녁을 맛있게	저녁을 맛있게	
19:00	°노을과 함께하는	°갯벌 올림픽°	
20:00	갯벌이야기°		
21:00		캠프화이어	
22:00			
23:00	갯벌에서의	갯벌에서의	
24:00	첫 번째 밤	두 번째 밤	

□ 활동내용



활동 1 갯벌과 친해지기

갯벌은 살아있다. 참가자들이 갯벌에서 활동하기에 앞서 갯벌에 관한 기초 지식을 얻고 갯벌속에 뒹굴면서 갯벌에 동화되는 가운데 국토에 대한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활동방법

- 갯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편한 옷으로 갈아 입는다.
- 모둠별로 자기소개를 하고 바다를 소재로한 모듬의 애칭을 짓는다.
- 모듬 전체가 모여 모듬의 애칭을 소개한다.
- 다 함께 장화를 신고 갯벌에 들어가 가벼운 운동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활동 2 노을과 함께하는 갯벌이야기

지는 해의 아름다움은 떠오르는 태양만큼 찬연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침착하게 한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갯벌이 형성된 배경과 자연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갯벌이 주는 낭만과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둠별로 뿔에 둘러 앉아 갯벌과 석양 그리고 바다를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 모둠 전체가 모여 느낌을 발표한다.
- 어둠이 내리면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둠별로 뿔에 둘러 앉아 게임과 장기자랑 시간을 갖는다.

활동 3 숨쉬는 갯벌

갯벌은 숨쉰다. 동쪽에 어둠이 가시는 아침에 갯벌에 나와 바다의 신비로움과 뿔의 신선함을 보며 함께 아침을 여는 활동

▶ 활동방법

- 기상과 동시에 모두 갯벌로 나와 체조를 한다.
- 함께 바다물이 닿는 곳까지 나아가 손으로 잔물을 맞본다.
- 갯벌에서의 아침식사 준비를 한다.

활동 4 갯벌에서의 아침

갯벌에서 준비한 간단한 아침식사를 갯벌에서 식사해 봄으로써 색다른 분위기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활동

▶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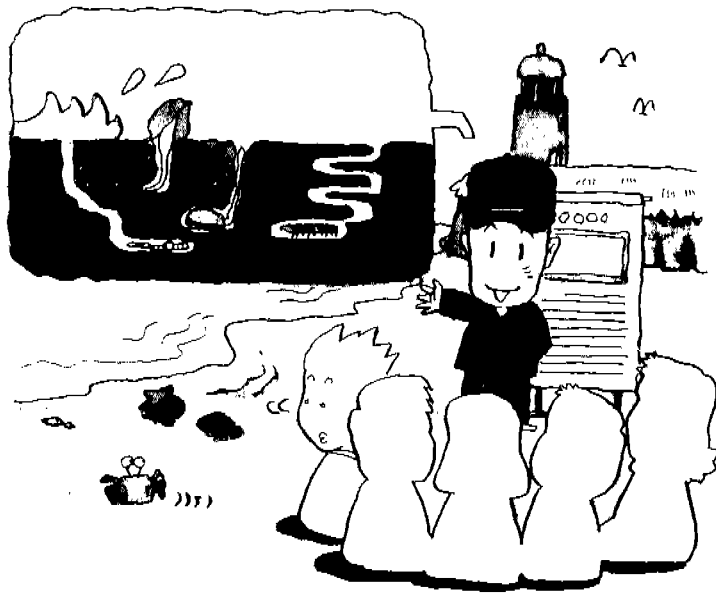
- 모둠별로 준비한 조개국과 주먹밥으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한다.
- 모둠별로 뒷정리를 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한다.

활동 5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갯벌은 바다 못지 않은 해산자원의 보고이다. 뿔속에 숨쉬는 조개와 굴 그리고 살포시 기어다니는 게뿐만 아니라 무한한 신비로움이 뿔속에 감춰져 있다. 보여지는 것만큼 아름답고 신기하게 보이지 않는 뿔속의 세계를 찾아 우리 국토가 곳곳에서 숨쉬고 있음을 체험하는 활동

▶ 활동방법

- 지도자는 갯벌의 형성과정, 갯벌의 생태, 갯벌의 기능 등을 설명한다.



- 모둠별로 갯벌생물 관찰 등 갯벌탐사를 한다.
- 모둠별 갯벌탐사시 사진이나 비디오촬영, 그림 혹은 글 등으로 표현한다.
- 모두 모여 갯벌탐사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활동 6 환경파괴의 끝

갯벌이 사라진다. 간척사업과 해안지대개발 등으로 인해 갯벌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 개발로 인한 갯벌 파괴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의 균형에 대해 느껴보는 활동

▶ 활동방법

- 갯벌환경의 변화에 대해 현지 주민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다.
- 모둠별로 개발로 인한 갯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 모둠별로 살펴본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갯벌의 미래 모습을 그려본다.
- 모둠 전체가 환경파괴의 종말을 표현한다.

활동 7 갯벌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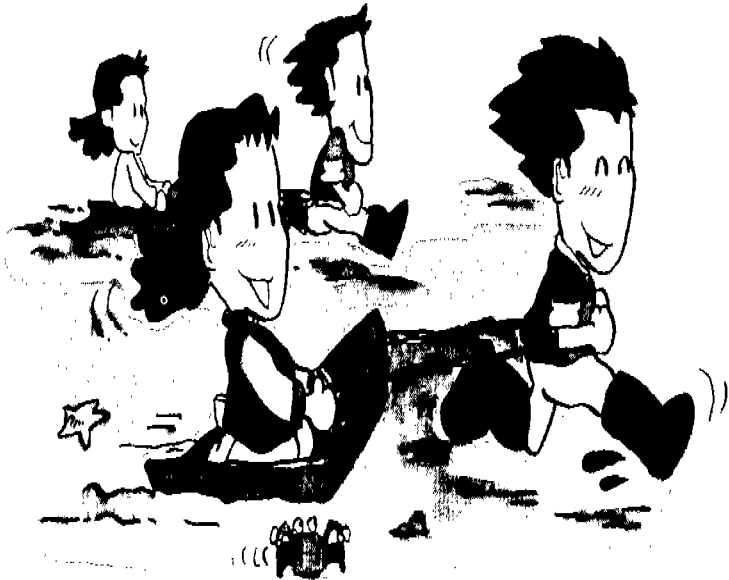
갯벌에서 참가자들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신체활동을 통해 색다른 갯벌 환경을 체험하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둠 전체가 모여 조개팀과 게팀으로 나눈다
- 팀별로 종목별 선수와 응원단장을 선정한다.
- 팀별로 나누어 서고 갯벌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인다.
- 갯벌계주 갯벌피구 등을 실시한다.
- 마지막 게임으로는 줄다리기를 한다.
- 지도자는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우승팀을 결정하고 진팀은 우승팀을 업어준다.
- 캠프화이어로 갯벌올림픽을 마친다.

활동 8 갯벌스키

갯벌스키를 통해 갯벌에서의 색다른 체험활동을 정리하고 간직하게 하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둠별로 준비한 스키세트를 착신하고 타본다.
- 모둠별로 왕자를 선정한 후 스키를 타고 마법의 성의 공주를 구하러 간다.
- 공주를 구한 참가자에게 ‘갯벌 스키왕자’ 칭호를 주고 상품으로 온몸에 뿔을 발라준다.
- 서로서로 뿔을 발라주며 마무리한다.

활동 9 갯벌을 가슴에 안고

갯벌에서의 수련활동을 총정리·평가하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둠별로 갯벌에서의 활동을 마치며 각자 소감을 이야기한다.
- 지도자는 참가자와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토론한다.

□ 활동자료

● 갯벌의 기능

갯벌은 바닷물과 하천수가 뒤섞여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늘 축축한 수분으로 젖어 있는데다 차단막 없이 내리쬰는 태양광선으로 동식물의 생산활동이 활발하다. 갯벌을 포함한 해안습지의 생태적 생산력은 풀밭의 3~6배, 숲의 1.5배에 달한다. 갯벌은 또한 천연적인 하수처리장으로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이 갯벌에서 분해된다. 이렇게 해서 갯벌 속에 쌓인 영양소는 생물들의 먹이가 된다. 가무락, 바지락, 동죽, 백합 등 조개류와 굴 등이 갯벌 양식장에서 채취된다. 물고기들도 갯벌을 산란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척사업 등으로 갯벌이 사라지면 주변 연안어장의 어획고가 격감한다. 또한 간척사업을 위해 쌓은 방조제의 배수갑문으로부터는 유독물질들이 배출되어 바다 생태계에 치명타를 가한다.

● 갯벌에서 사는 생물

갯벌이란 바닷물이 나간 뒤에 드러난 땅을 말하는 것으로 밀물 때는 바닷물이 갯벌을 온통 덮는다. 썰물 때에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나는데 바닷물에 섞여있던 여러 가지 영양분은 물이 빠진 뒤에도 갯벌에 그대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에 의해서 운반되는 토사도 갯벌에 쌓인다. 이런 토사 안에도 영양분이 많이 섞여있어 박테리아나 조류같은 식물 플랑크톤이 순식간에 불어난다. 그리고 이들을 먹고 번식하는 갯지렁이나 실지렁이 등의 좋은 생활터전이 된다. 갯벌에는 갯지렁이 외에도 조개, 새우, 방게, 칠게, 넓적콩게, 실지렁이 등이 살고있다.

● 갯벌에서 볼 수 있는 새

갯벌의 감탕에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어 이 유기물은 미생물이 먹고 이 미생물은 갯지렁이나 게 등이 잡아 먹는데, 이들 갯지렁이나 게를 먹으려고 모여드는 새가 바로 도요새나 물떼새들이다. 도요새나 물떼새들은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북쪽에서 번식하고 8~10월경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지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날아간다.

▷ 관찰할 내용

- 육지에 가까운 갯벌에서 먹이를 찾아가 아니면 물가 쪽에서 찾아가 살펴 본다.
- 먹이는 어떤 것인가 살펴본다.
- 걸을 때 몸짓의 특징을 살펴본다.

자료 : 자연도감. 1991.

제주도 사랑

□ 활동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섬 전체가 하나의 도를 이루고 있는 제주도는 갖가지 화산 지형에다 난대성, 열대성 기후로 남국의 정취가 가득한 섬이다. 이국적이면서도 우리 국토의 남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물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체험하게 한다.

□ 활동일정

얼마나 : 사흘 밤 나흘 낮동안

어디서 : 제주도에서

누구와 : 30명 내외의 친구들과

□ 활동일정표

시간	만남의 날	화합의 날	나눔의 날	그리움의 날
06:00		°새벽 열기°	강가의 아침	°일출그리기°
07:00		아 침	아 침	아 침
08:00		°아침향기	°점심만들기°	
09:00		만들기°		°동굴탐사°
10:00		°산방굴사	°한라산	: 만장굴
11:00	다 함께 모여	에서°	트래킹°	
12:00	점 심	점 심	:점심을 먹으며	점 심
13:00	°마음함께		성판악까지	°마음으로 쓰는
14:00	하기°	°폭포를		제주도 사랑°
15:00	°목장으로°	찾아°	°해변에서°	집 으 로
16:00	: 이시들	: 천지연과		
17:00	목장에서	정방폭포	성산포로	
18:00	저 녀	°원시마을		
19:00		처럼°	저 녀	
20:00	°야간 오리	: 서귀포에서		
21:00	엔터테인먼트°	°별자리여행°	°캠프화이어°	
22:00				
23:00	꿈나라로	꿈나라로	꿈나라로	
24:00				

□ 활동내용



활동 1 마음 함께하기

참가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소개하는 활동

▶ 활동방법

- 원형으로 둘러앉아 자기 소개를 한다.
- 6~8명 정도로 한 모둠을 구성하고 제주도와 관련된 모듬이름을 지은 후 전체 모듬이 모여 모듬이름을 소개한다.
- 모듬 대항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노래 부르기 게임을 하여 가장 잘한 모듬에게는 하루방을 준다.

활동 2 목장에서

제주도의 자연적 특성으로 이루어내는 환경 중의 하나인 목장을 견학하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듬별로 제주도 목장의 형성과정과 특징 등에 관심을 갖고 견학한다.
- 견학이 끝난 후에는 모듬별로 목장그리기나 목장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다.

활동 3 야간 오리엔티어링

참가자들의 협동심을 키우고 어둠속에서 자연의 모습을 느끼고 살피는 활동

▶ 활동방법

- 주변의 목표물(이름드리 느티나무, 서낭당 등) 중심으로 오리엔티어링 코스를 정하고 모둠 전체에 코스 안내지도를 나누어 준다.
- 모둠에서 두 명씩 선발하여 각 포스트에서 퀴즈를 내는 역할을 하게 한다.
- 개인별로 코스가 적힌 종이를 포스트만큼 나누어 주고 출발은 시차를 두고 혼자하게 한다.
- 코스에 적힌대로 포스트에 도착하면 내주는 퀴즈를 풀고 통과 되면 준비되어 있는 함에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쪽지를 넣는다.
- 퀴즈를 못풀면 종이에 도장만 찍어온다.
-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가장 적게 갖고 있는 모둠이 우승팀이 된다.



활동 4 해변가에서 새벽을 열며

여명속의 해변가에서 아침을 맞음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여는 활동

▶ 활동방법

- 전체 모듬이 모여 간단하게 몸을 푼다.
- 가벼운 조깅으로 해변까지 간다.
- 해변에 도착해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바다를 맞이한다.
- 돌아올 때는 산보하는 기분으로 돌아온다.

활동 5 아침향기 만들기

흐르는 음악을 듣고 명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활동

▶ 활동방법

- 조용한 음악을 선정하여 들려준다.
- 자유롭게 편안한 자세로 감상한다.
- 감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활동 6 산방굴사에서

제주해안에 위치한 흙없는 암산으로 지질학상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산방산에 위치한 산방굴사 탐사활동

▶ 활동방법

- 산방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듣고 산방산의 지질학적 특성에 유의하며 탐사한다.
- 산방굴사에서는 ‘산방덕의 눈물’이라는 약수를 마시면서 산방굴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생각한다.
- 굴입구에서는 잔디능선에 펼쳐지는 해안 풍경과 멀리 아득히 보이는 국토의 최남단인 마라도와 가파도의 모습을 가슴에 담는다.

활동 7 폭포를 찾아

제주도에서 가장 수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폭포인 천지연 폭포와
해안폭포인 정방폭포 탐사활동

▶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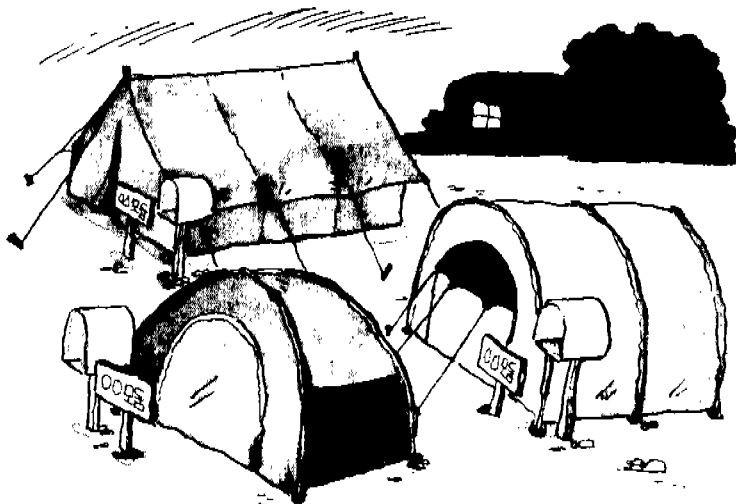
- 천지연 폭포에 도달하면 폭포가 떨어지는 계곡의 높이와 넓이 알아맞추기를 한다.
- 폭포수가 떨어지는 천지연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무태장어에 대해 알아본다(주로 밤에만 활동함).
-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해안 폭포인 정방폭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모둠별로 바다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한다.

활동 8 원시마을처럼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자연속에서 자연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활동

▶ 활동방법

- 텐트칠 자리를 정하여 모둠별로 텐트를 치고 텐트 앞에는 모듬이름을 적은 팻말과 우편함을 세운다.
- 모듬간의 의사전달은 우편함을 이용한다.



- 모듬별 텐트 설치작업이 다 끝나면 전체 모듬이 모여 저녁메뉴를 정하고 모듬별로 맡은 음식을 준비한다.
- 저녁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면 전체 모듬이 모여 식사를 한다.
- 가장 맛있게 만든 모듬에게는 설거지를 면하게 해 준다.

활동 9 별자리 여행

별빛이 내리는 야외에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별들을 관찰해 봄으로써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듬 전체가 모여 별자리 찾는 법과 계절별 별자리에 대해서 토론한다.
- 모듬별로 별이름을 정하고 그 별을 찾도록 한다.
- 모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찾는다.
- 가장 먼저 별찾기가 끝난 모듬에게는 ‘어린왕자’ 지팡이를 준다.
- 별자리 여행이 끝나면 모듬별로 관찰한 별자리를 그린다.
- 모듬별로 그린 별자리그림으로 모듬전체가 모여 큰 도화지에 별자리 지도를 만든다.

활동 10 점심만들기

트레킹을 할 때 필요한 행동식 점심을 만드는 활동

▶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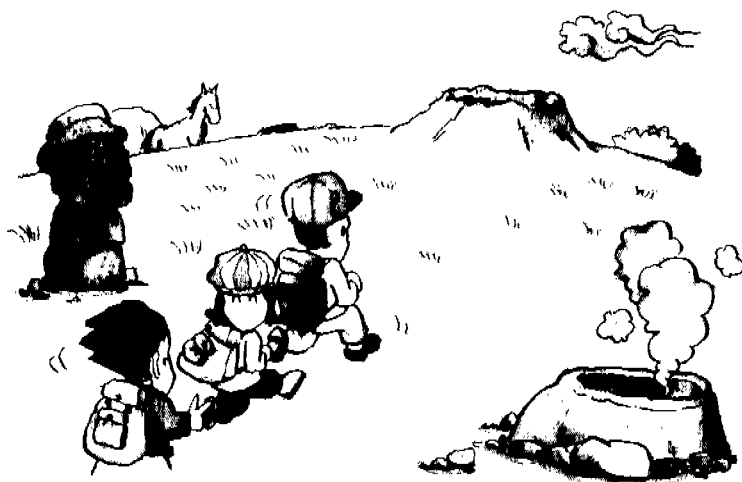
- 모듬별로 간단한 메뉴(주먹밥, 김밥, 샌드위치 등)를 정한다.
- 메뉴에 따라 재료 준비를 하고 모듬별로 점심을 만든다.
- 휴대가 간편하게 포장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

활동 11 한라산트레킹

여유와 사색을 즐기며 대자연을 감상하는 활동

▶ 활동방법

- 트레킹 주제(꽃, 나물, 나무 등)를 정한다.
- 트레킹 코스(성판악까지)에 관한 안내지도와 관련자료를 나



누어 준다.

- 모둠별로 트레킹 복장을 준비하고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한 후 두 줄로 출발한다.
- 트레킹 주제에 유의하면서 경관이 좋은 곳에서는 즉석 시낭송 대회를 연다.
- 점심시간에는 전체 모듬이 모여 트레킹을 주제로 토론한다.
- 돌아와서는 모듬별로 트레킹 주제에 관한 그림이나 자료집을 만든다.

활동 12 해변에서

트레킹으로 지친 몸을 해변에서 쉬게 하는 활동

▶ 활동방법

- 전체 모듬이 모여 간단한 체조를 한 후 해변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활동 13 캠프화이어

함께 노래부르기, 장기자랑 등을 통해 구성원간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활동

▶ 활동방법

- 캠프화이어 장소를 선정하고 점화방법을 결정한다.

- 점화와 함께 다 함께 노래를 부른다.
- 분위기가 고조되면 모둠 대항별 장기자랑을 한다.
- 모닥불이 사그러들고 별빛이 빛나게 되면 손에 손을 잡고 조용한 노래를 부르며 원형으로 돌다가 서로서로에게 인사하며 정리한다.

활동 14 일출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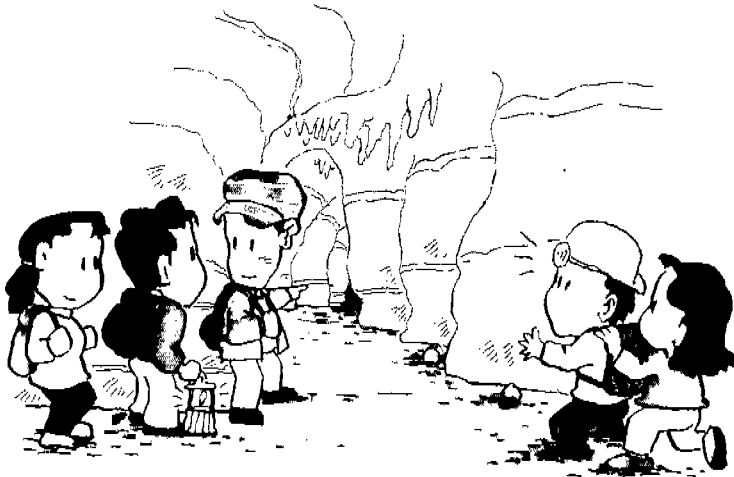
새벽 일찍 성산 일출봉에서 바다 냄새 물씬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쪽 검은 바다가 부영게 밝아지면서 붉은 빛과 함께 파르르 물기를 털고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둠별로 일출봉으로 출발한다.
- 일출의 순간을 그림이나 글, 사진 등으로 표현한다.
- 일출의 순간이 지나면 해식절벽과 망망대해를 보며 일출봉의 생성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활동 15 동굴탐사

세계적인 동굴지대인 제주도에서도 가장 긴 동굴인 만장굴 탐사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신비감과 암흑속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둠 전체가 모여 탐사할 동굴(만장굴)의 특성에 관해 알아본다.
- 동굴탐사에 적합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동굴탐사를 한다.
- 동굴에서는 안전에 유의하고 용암종류 및 용암석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다.
- 동굴탐사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동굴의 모습을 그려본다.

활동 16 마음으로 쓰는 제주도 사랑

제주도의 지리적·생태학적 특징에 대해 정리해 봄으로써 국토의 최남단을 지키는 제주도 일주를 정리하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둠별로 제주도 일주지도를 만든다.
- 모둠별로 제주도 일주지도 만들기가 끝나면 전체 모둠이 모여 모둠별로 발표한다.
- 모듬 전체가 모여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생활상에 대해 물과 비교하면서 토론한다.

□ 활동자료

● 제주도 사랑의 길

이시돌 목장－산방굴사－천지역 폭포－정방폭포－한라산－표선해수욕장－성산 일출봉－만장굴

□ 활동개요

바다를 끼고 산과 들판 그리고 강이 어우러져 이루어 놓은 우리 국토에 배여있는 세월과 삶의 흔적을 찾아 국토를 종단해 보는 활동이다. 지질과 지형에 따라 달리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과 삶의 원형들을 살펴봄으로써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한다.

□ 활동일정

얼마나 : 나흘 밤과 다섯 낮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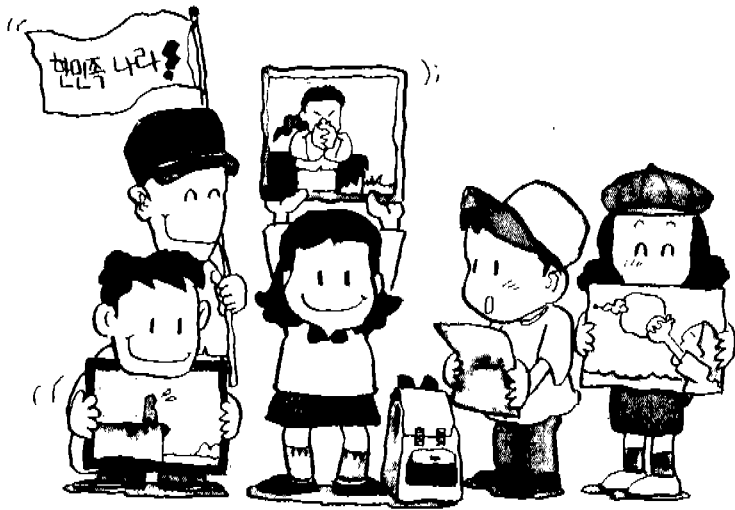
어디서 : 태종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누구와 : 30명 내외의 친구들과

□ 활동일정표

시간	만남의 날	화합의 날	나눔의 날	사랑의 날	보람의 날
06:00		°토함산에	숲 속 의	일출그리기	해변체조
07:00		올라°	아 침	아 침	아 침
08:00		아 침	태백산으로		
09:00		°신라의숨결		해안선	°통일을
10:00	함께 모여서	을 찾아°	°태백산	따라가기	바라보며°
11:00		: 불국사, 감은	에서°		: 통일전망
12:00	점 심	사지, 이견대로		점 심	대에서
13:00	태종대로				
14:00	°바다				늦은점심
15:00	그리기°	불영계곡		°의상대에서°	일정을
16:00		으로	추암해수욕장		마치며
17:00	경주로		에서		
18:00		°계곡의 물 소	°모래마을	저 녀	
19:00	저 녀	리로 풍류물°	이야기°	°국토	
20:00	°사랑			그리기°	
21:00	나누기°			캠프화이어	
22:00					
23:00	꿈나라로	달빛 맞으며	파도가 부르는	꿈나라로	
24:00		꾸는 꿈	자장가		

□ 활동내용



활동 1 바다그리기

한반도가 융기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보여주는 해안단구인 태종대 탐사활동

▶ 활동방법

- 태종대가 보여주는 지형의 역사에 관해 사전 조사한다.
- 자갈해안에서는 자신을 닮은 자갈을 찾아본다.
- 마당바위에서는 망부석에 얽힌 전설을 듣고 바다를 향한 절벽과 바위에 와서 부서지는 파도를 주제로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다.

활동 2 사랑 나누기

몸으로 하는 놀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열게하고 친화력을 높이는 활동

▶ 활동방법

- 두 개의 모둠을 만들고 한 모둠은 안쪽에 또 다른 모둠은 바깥쪽에 둥글게 선다.

- 안쪽 모둠과 바깥쪽 모둠이 서로 마주보고 손가락씨름을 한다.
- 손가락씨름에서 진 사람은 제자리에 앉는다.
- 서 있는 사람이 많은 모둠이 우승팀이 된다.
- 우승 모둠이 탐험대가 되고 진 모둠은 해적이 되어 보물섬놀이를 한다.
- 바닥에 구불구불한 선으로 금을 그어 보물섬과 보물섬 입구를 표시하고 놀이를 시작한다.
- ‘시작’ 소리와 함께 탐험대모둠은 해적모둠이 지키고 있는 보물섬을 입구를 통해 들어간다.
- 해적모둠은 보물을 지키기 위해 탐험대모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쳐낸다. 이 과정에서 금을 밟으면 실격이 되고 보물에 손을 대면 이기게 된다.
- 놀이가 다 끝나면 원형으로 서서 촛불의식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원한다.

활동 4 토함산에 올라

경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안개와 구름을 삼키고 토하는 산’이라는 뜻의 토함산에서 동해의 잔잔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활동

▶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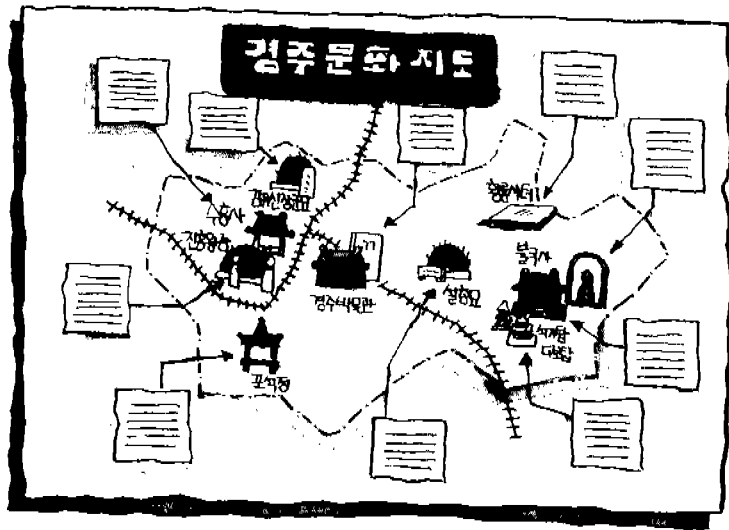
- 모둠별로 토함산에 올라 일출을 바라보며 자연의 신비를 체험한다.

활동 5 신라의 숨결을 찾아

단아한 청정의 미로 절대기교를 자랑하는 문화재와 깊은 유서로 역사를 무언중에 대변하는 문화재가 가득한 고도 경주에서 신라의 숨결을 찾아보는 활동

▶ 활동방법

- 답사할 장소에 관해 모둠별로 조사하고 답사기록장을 나누어 준다.
- 답사할 때에는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세밀하게 관



찰하여 답사기록장에 기록한다.

- 답사가 끝난 후에는 전체 모둠이 모여 답사소감을 발표한다.
- 발표가 끝난 후에는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경주문화지도’를 만든다.

활동 6 계곡의 물소리로 풍류를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 그 사이로 흐르는 차가운 계곡물이 찾는 이를 시원하게 해주는 불영계곡에서의 야영활동

▶ 활동방법

- 모둠별로 텐트 칠 장소를 선정한다.
- 장소선정이 끝난 후에는 불영사를 찾아간다.
- 불영사 앞 연못에서 불영사 창건설화를 듣고 물속에서 부처의 형상을 찾아본다.
- 모둠별로 텐트를 친 후 저녁 준비를 한다.
- 저녁식사 후에는 전체 모둠이 모여 토론이나 게임을 한다.
- 밤이 깊어지면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며 벌레소리를 들어본다.

활동 7 태백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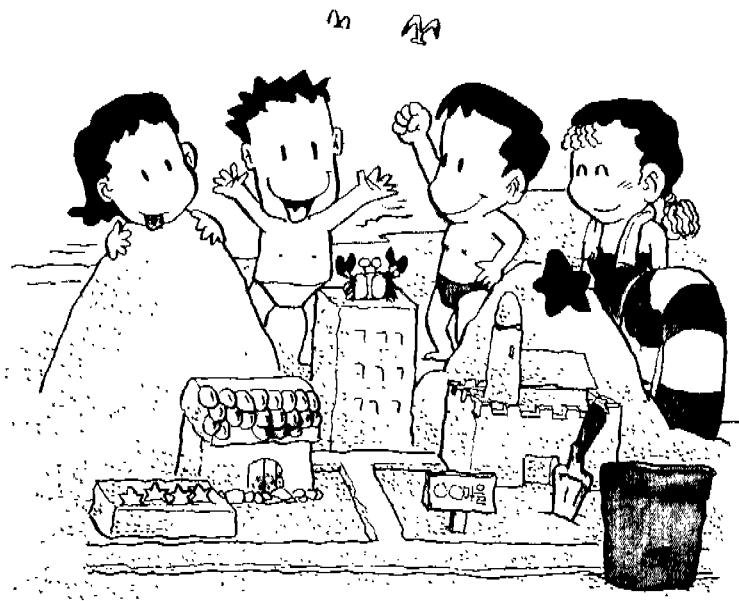
역사·지리·문화적으로 우리민족의 구심적 부분이 되고 있으며 영동과 영서를 나누고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중후하고도 웅장한 포용력을 지닌 태백산에서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찾아보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둠별로 주변의 나무와 꽃에 관심을 갖고 살피면서 산행한다.
- 태백산 정상 망경대에 쌓여있는 단군을 위한 제단인 천제단에서는 단군신화의 역사적 의미와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돌아오는 길에는 태백시 중심부에 있는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을 둘러 산과 강 그리고 평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모둠별로 자유롭게 토론한다.

활동 8 모래마을 이야기

해변에서 수중놀이와 모래놀이를 통해 바다의 아름다움과 국토속에서의 바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활동



▶ 활동방법

- 해변에 나와 가볍게 몸을 쏜 후 바다를 응시한다.
- 모듬을 두 팀으로 나누어 수중줄다리기를 한다.
- 모듬별로 모래와 조개껍질 등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다.
- 모듬별 집짓기가 끝나면 전체모듬이 모여 꽃길, 모래연못 등을 공동으로 만들어 모래마을을 만든다.
- 모래마을이 완성되면 모래성을 쌓고 전체 모듬이 모여 모래마을의 미래를 설계한다.
- 노을이 물드는 해변에서 모듬별로 저녁식사를 한다.
- 해변에 둘러앉아 바다내음을 맡으며 파도소리를 듣는다.

활동 9 낙산사 의상대에서

관동8경의 하나로 알려진 의상대와 파랑새의 전설이 깃들여져 있는 홍련암 등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해변절경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불심을 통해 무한한 깨달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듬별로 낙산사와 의상대 홍련암을 답사한다.
- 의상대에서는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호국신앙으로서의 불교가 갖는 의미 등에 대해 토론한다.
- 저녁 노을 속에서 낙산해수욕장의 고운 모래를 밟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활동 10 국토 그리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라와 국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탐색해 보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는 활동

▶ 활동방법

- 모듬별로 답사장소를 중심으로 도화지에 활동로지도를 만든다.
- 활동로지도 그리기가 끝나면 색찰흙이나 색종이 등을 이용하여 답사장소에서 인상깊었던 문화재나 경치를 형상화시켜 지도 위의 답사장소에 붙인다.

- 모둠별로 지도 만들기가 끝나면 지도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 모둠별 발표가 끝나면 답사일지 형식의 소감문을 작성하고 희망자는 발표한다.

활동 11 통일을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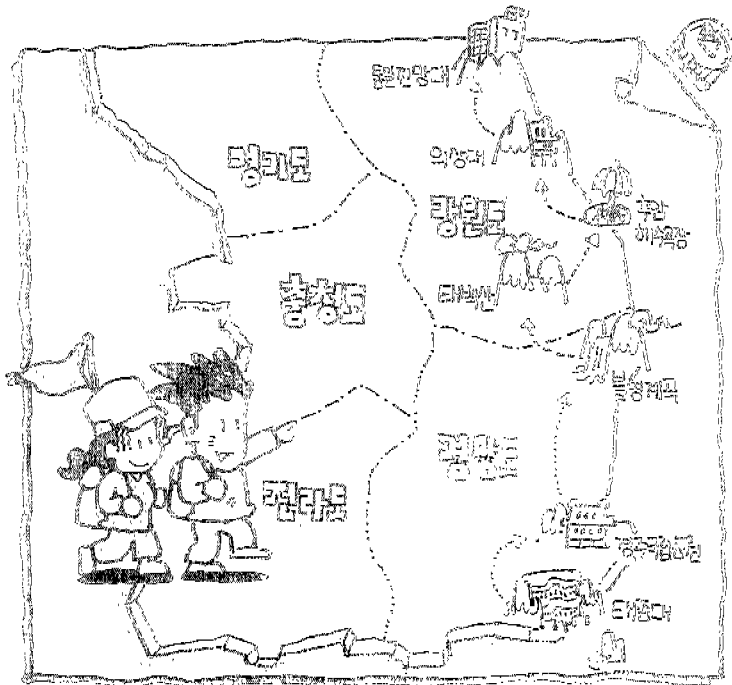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전망대로 맑은 날에는 금강산이 보이는 통일전망대에서 민족과 국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활동

▶ 활동방법

- 휴전선 동쪽 끝 민통선 최북단에서 통일의지를 다져보고 망향과 분단의 설움을 느껴본다.

□ 활동자료

● 한민족 나라 탐사길



태종대 - 경주국립공원 - 불영계곡 - 태백산 - 추암해수욕
장 - 외상대 - 통일전망대

III. 도움과정

가슴에는 사랑을
등에는 배낭을
배낭여행의 모든 것

가슴에는 사랑을
등에는 배낭을

새를 찾아서
자연사 기행
숲속의 향기를 따라

□ 개 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위치적 조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종의 철새들이 오가는 길목이 된다. 힘찬 날개짓으로 물살을 가르며 새떼의 군무를 살펴해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상과 꿈을 키우는 동시에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도 일깨울 수 있게 한다.

□ 새를 만날 수 있는 곳



□ 새를 찾아 떠나기 전에

- ▶ 우선 공원의 녹지나 강가 등지에서 새를 바라보고 지저귀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새의 이름과 습성, 새를 찾는 방법, 새들의 서식처 등 새들의 생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간다.
- ▶ 쌍안경준비 : 레저 표준용품인 7~8배율의 쌍안경을 준비한다.
- ▶ 양쪽 눈의 간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쌍안경을 접듯이 꺾어서 시야가 하나의 원에 겹치도록 한다.
- ▶ 쌍안경으로 새를 포착할 때에는 새가 앉은 나무 밑동에서부터 위로 움직여가며 렌즈에 잡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 쌍안경 외에 조류도감과 기록노트도 준비하여 새를 발견한 장소, 시간, 나는모습, 소리, 동작 등을 기록해 두면 관찰달력을 만들 수 있다.
- ▶ 카메라는 일반용 자동카메라도 무난하지만 망원렌즈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 ▶ 카세트 녹음기와 짐음기는 새소리 녹음에 필요하다.
- ▶ 복장은 간편한 등산복과 목이 긴 운동화 차림이면 되지만 높지나 갯벌일 때는 장화를 따로 준비한다.
- ▶ 새는 색깔에 예민하므로 서식지 주변의 색깔과 대조되는 뚜렷한 색깔이 어른거리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곧 알아차리고 모습을 감추므로 여름 철새를 찾아갈 때는 빨강, 노랑, 흰색 계통의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피하고 겨울 철새를 찾아갈 때는 빨간 원색 옷차림은 삼가한다. 숲속에서는 녹색이나 갈색 계통의 옷이, 설원에서는 흰색이나 회색 계통의 옷이 적당하다.
- ▶ 새를 관찰할 때는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겨울철새를 보러 갈 때는 새먹이를 준비해 가는 배려도 필요하다.

□ 새를 찾아서

주남 저수지

아직도 새들의 낙원

- ▶ 주변환경

경남 창원군 동면 죽동리에 위치한 주남저수지는 그 넓이가 280Ha나 되는 커다란 저수지로 매년 11월부터 봄이 되기전 3월 정도까지 철새뿐 아니라 텃새 또한 끊이지 않고 찾아드는 새들의 보금자리이다. 낙동강 계류를 끌어모아 만든 인공저수지로 주변의 수려한 산세와 갈대밭이 조화를 이루어 경치가 아름답다. 검정말, 개구리밥 등의 수초가 풍부한 이곳에는 갖가지 오리류를 비롯하여 채두루미, 물수리, 흰꼬리수리가 단골손님으로 찾아오고 있다.

▶ 탐조활동

3만여 마리의 가창오리를 비롯하여 고니, 기러기, 청둥오리, 왜가리 등이 하루에도 5단에서 10만마리씩 날아들어 그 날개짓이 장관을 이룬다.

※ 찾아가기

마산에서 본포행 시외버스 이용

철원군 비무장지대

겨울 철새와 만날 수 있는 곳

▶ 주변환경

반세기 가까운 오랜세월동안 인적이 차단되어 각시괴불, 만병초, 꽃개회 나무 등이 넘쳐난 숲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옛 경원선 철로변의 남동쪽에 널찍하게 펼쳐진 천통리 일대의 들판에는 부들, 갈대 등의 잡초 씨앗이 풍성하고 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 새들에게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해 준다. 또한 남대천과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한탄강, 토교 저수지 등의 풍부한 수자원도 철새도래지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조건이다.

▶ 탐조활동

철원벌을 빛내는 새는 두루미와 채두루미이다. 탐조활동은 두루미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적격이다.

❖ 찾아가기

개인자격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10인 이상의 단체를 만들어 20일전에 미리 신청

김화, 동송, 신철원행 직행버스 이용

서산 간척지

어민의 항으로 만든 새들의 낙원

▶ 주변환경

서산의 간척사업 이후 농경지와 두 곳의 인공 담수호로 탈바꿈한 이곳에 1980년대 말부터 철새들이 몰려 새로운 철새도래지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 탐조활동

시베리아에서 번식하는 겨울철새인 황새와 논병아리를 볼 수 있다. 서산방조제에는 고니를 비롯하여 기러기, 청둥오리, 백조 등의 철새들이 날아들어 철새들의 천국을 이룬다.

❖ 찾아가기

서산행이나 태안행 버스 이용

조계산

호박새가 사는 무릉도원

▶ 주변환경

조계천 계곡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란히 뻗은 능선으로 대청을 이룬 조계산은 만만치 않은 산세와 수려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굴나무, 서어나무, 개굴나무와 같은 갯가지의 나무가 뽕뽕히 들어차 있다. 그래서 그 품안에 검독수리를 비롯하여 박새, 소쩍새, 솔부엉이, 피꼬리, 오색 딱다구리, 호반새 등이 둥지를 틀고 있어 새보기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 탐조활동

검독수리, 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오색 딱다구리는 텃새이고 소쩍새, 술부엉이, 찌꼬리, 휘파람새, 호반새는 여름철새다. 호반새는 생김새도 예쁘고 해충을 잡아먹어 산림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단비를 예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 찾아가기

전라선 여수행 열차를 타고 순천역에서 하차하여 송광사행 직행버스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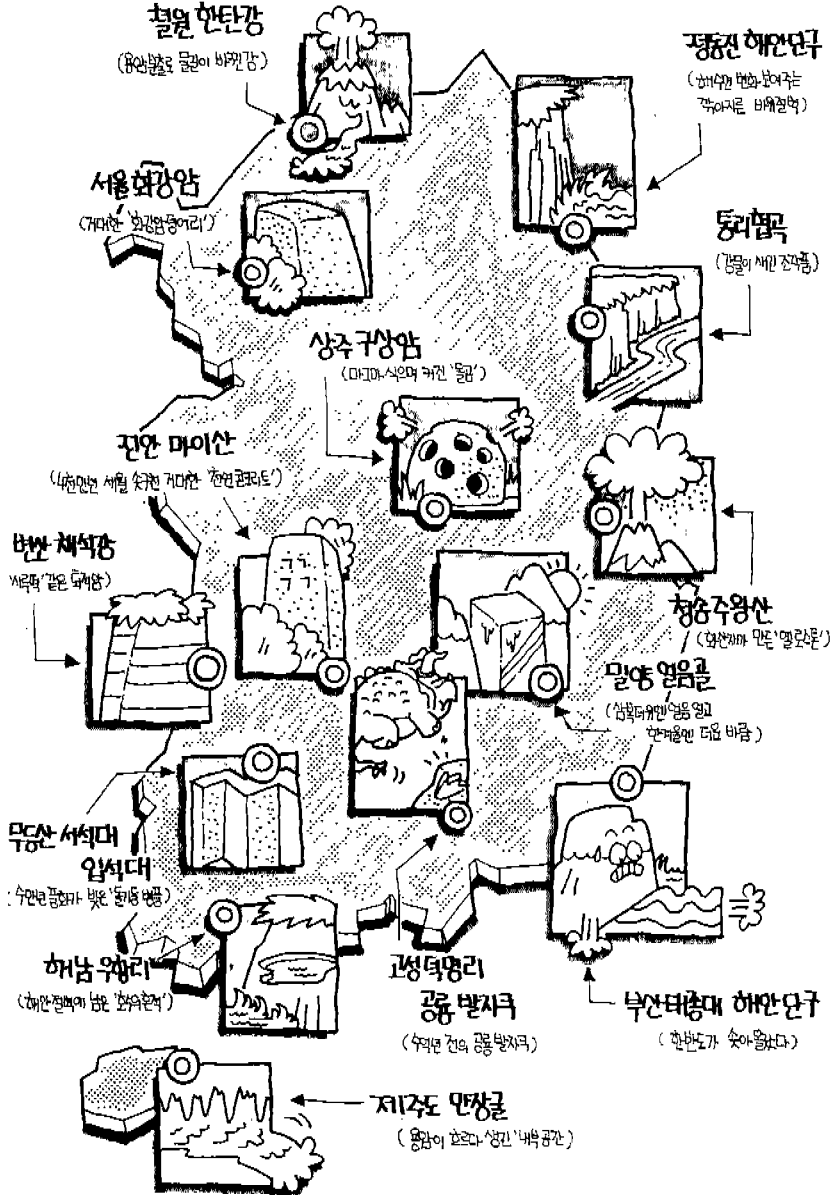
자료 : 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 1995.

주제가 있는 여행. 1996.

□ 개 요

길고 긴 지구의 역사가 우리의 국토 위에 남겨 놓은 자연유적을 찾아 나섬으로써 국토의 과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런 상상과 흔적을 통해 국토의 지질학적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게 되고 국토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을 수 있다.

□ 자연사 기행 탐사로



□ 숨쉬는 한반도를 찾아서

고성 덕명리

공룡의 발자국을 찾아서

▶ 주변환경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해안. 이곳 상족유원지에서 실바위까지의 6km에 걸친 해안에는 중생대에 한반도에서 살았던 1억년전의 수많은 공룡 발자국이 술한 새발자국과 함께 뚜렷하게 남아있다. 이것들이 바로 중생대 백악기(1억 3천만년 전부터 6천 5백만년 전까지 약 6천 5백만년 동안)에 한반도에 폐지어 살았던 공룡들의 발자국이다. 상족암을 지나 통영 앞바다로 불쑥 튀어나온 해변을 돌아보면, 이 지역이 거대한 호수이던 중생대 백악기 당시 알은 호숫가에서 먹이를 먹던 새들의 발자국이 곳곳에 보인다.

※ 찾아가기

삼천포 시내에서 시내버스 이용

태종대

계단바위가 수면위로 오른 해안단구

▶ 주변환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해안단구가 발달해 있는 태종대는 한반도가 융기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 해안단구란 과거 해수면 근처에서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해식절벽이나 평평하게 깎인 계단 모양의 지형이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물위로 떠오른 것이다. 태종대의 단구는 측면이 직벽에 가깝게 가파른 반면 윗면이 경사 6~7도로 평평한 파식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은 파도 때문에 바위가 절리면을 따라 수직으로 떨어져 나가고, 쓸려 나가지 않고 남은 것들은 윗면이 충리를 따라 침식돼 평평한 계단 모양을 하게 된 것이다. 융기 파식대의 형태를 띠는 태종대의 해안단구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신선바위로 불리는 해발 28m의 파식대이다. 신선바위 아래 파도가

드나드는 폭 1m 안팎의 동굴들은 파도가 바위 절벽을 깎아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해수면 높이 수준으로 파도에 깎여 있는 평평한 바위들은 지반이 융기하면 융기파식대가 될 것들이다.

❖ 찾아가기

부산역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태종대에 도착한 후 순환도로 서
틀버스 이용

태종대 해안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람선을 이용

밀양 얼음골

삼복더위에 얼음이 어는 곳

▶ 주변환경

삼복더위에 얼음이 얼었다가 처서가 지나면서 녹기시작해 삼동 한겨울엔 더운 바람이 불어나오는 골짜기로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신비한 곳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화산암(안산암)으로 이루어진 돌밭 내부에서 일어나는 단열냉각현상 때문이다.

❖ 찾아가기

밀양시내에서 버스 이용

통리 협곡

한국판 그랜드캐니언

▶ 주변환경

강물이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로 침식과 퇴적 작용에 의해서이며 침식작용이 빚어내는 조화의 대표적인 예는 협곡이다. 한국판 그랜드캐니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인폭포의 협곡은,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역암층으로 신생대초의 심한 단층작용 속에서 강물에 침식돼 270m 깊이로 패여 내려갔다. 해발 700m 안팎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안개나 구름이 끼는 날이 많으며, 이 때 경치가 더 아름답고 신비하다. 또한 협곡의 전체적인 색조가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협곡을 구성하고 있는 퇴적암들이 강물속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건조한 기후조건으로 공기중에 노출된 채 퇴적돼 산화되었기 때문이다. 혜성사 부근에서 보면 맞은편 깊고 넓은 협곡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오며 미인폭포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올려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찾아가기

태백역에서 호산으로 가는 완행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 이용

정동진 해안단구

해수면의 변화 보여주는 곳

▶ 주변환경

해발 75~80m의 높이에 넓게 펼쳐지는 정동진 해안단구는 약 3백만년전에서 2백 50만년 전(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 찾아가기

강릉에서 시외버스나 좌석버스 이용

철원 한탄강

용암 분출로 물길이 바뀐 땅

▶ 주변환경

우리나라의 강은 일반적으로 범람원 즉 충적평야가 넓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해 철원 경기도 연천을 거쳐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한탄강은 평원분지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계곡이 좁고 깊게 파인 것이 특징이어서 웬만한 홍수에도 좀처럼 범람하는 일이 없다. 또 계곡에 짝 다가서지 않는 한 평지에서는 물길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특징이다. 한탄강이 이런 지형적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이 강이 화산암의 하나인 현무암 대지 위를 흐르기 때문이다. 이 강 주변의 폭포나 계곡의 수직절벽들은 현무암이 물에 침식돼 만들어진 전형적인 지형이다. 또한 이 지역은 현무암 주변에 기반암인 선캄브리아 변성암과

취라기 화강암, 백악기 화산암 등이 함께 노출돼 있고 현무암 분출 이전 지각변동에 따른 지층의 부정합이 드러나 있어 좋은 지질학 교육장을 제공한다.

※ 찾아가기

동두천에서 연천을 거쳐 철원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의정부에서 포천가도를 타고 신철원을 지나 갈말 동송으로 가는 방법이 있음.

변산 채석강

퇴적암 절경

▶ 주변환경

채석강은 중생대 백악기의 호수에서 퇴적된 퇴적암 층으로 다른 퇴적암 층에서는 볼 수 없는 퇴적환경과 퇴적과정이 절벽에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수천만년 동안 바닷물에 깎이고 남은 바위절벽면을 이루고 있는 자갈 모래 등의 켜(층리)가 수평으로 길게 이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채석강의 절벽은 해수면 부근은 검은 색의 이암과 실트암으로 이루어져 얇은 책을 연상하게 하는 반면, 위는 층리가 다소 두껍게 나타나는 사암으로 이루어져 곳곳에 얇은 역암층이 관찰된다. 반면 퇴적구조상 채석강의 아래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봉화봉 남쪽은 큰 바위들이 끼어 있는 역암 층이 두껍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로 갈수록 입자가 크고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것이다. 이런 퇴적구조로 볼 때 입자가 크고 불규칙적인 역암층이 쌓인 환경은 수심이 깊고 경사가 급한 호수 속이었으며 층의 두께로 볼 때 그 시기는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찾아가기

부안에서 격포까지 가는 시외버스 이용

호남선 신태인에서 하차, 부안으로 들어가 시외버스 이용

무등산 서석대

동기동 병풍

▶ 주변환경

무등산은 멀리서 보기엔 영락없는 흙산이다. 그러나 정작 산을 올라보면 산비탈 곳곳에 굽기 1m 안팎의 커다란 바위들이 쌓여 돌바다를 이룬 너덜경이 있을 뿐 아니라, 입석대에서 규봉암까지의 정상부근 능선에는 깎아지른 암반들이 이어진다. 이처럼 무등산이 흙산의 외양과 돌산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이유는 화산 폭발로 분출한 화산암(석영 안산암)체가 수천만년 동안 풍화와 침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능선의 입석대와 서석대 등은 오랜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이겨낸 석영 안산암 덩어리이며, 너덜정과 숲에 덮힌 산비탈은 이 화산암이 부서진 바위와 흙이다. 동에서 서로 줄지어 서있는 서석대는 저녁노을이 물들면 석양의 햇볕이 반사돼 수정처럼 강한 빛을 내며 반짝거려 수정병풍으로도 불리운다. 입석대에서 서석대까지의 이같은 돌모양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등산만의 절경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산암이 풍화·침식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다. 5월에는 철쭉이 가을이면 억새가 만발해 장관을 이룬다.

※ 찾아가기

광주에서 시내버스를 이용, 무등산 도립공원 내의 중심사를 거쳐 오름

해남 우항리

해안 절벽에 남은 호수의 흔적

▶ 주변환경

호수의 흔적이 한반도에서 가장 길고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이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북쪽 해안일대이다. 얇은 종이와 조금 두꺼운 책을 섞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절벽이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다. 얇은 종이를 쌓은 듯한 돌은 검은 색을 띠는 반면 이보다 조금 두꺼운 층은 푸른색 또는 흰색이 감도는 밝은 색을 나타내고 있다.

노두가 깨끗하게 드러나는 퇴적암층으로는 세계적인 규모이며 층리가 수평으로 나란하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판암과 사암의 층리가 수평으로 곱게 형성된 것은 매우 안정된 호수 속에서 퇴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퇴적 이후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지 않았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물갈퀴 새발자국 화석을 제외하더라도 우항리의 퇴적암 노두는 지질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 찾아가기

해남읍에서 진도 방향으로 20km 거리인 황산면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3~4km 들어가면 우항리가 나타난다. 마을로 들어갈 필요없이 갯벌로 들어가면 퇴적암 노두를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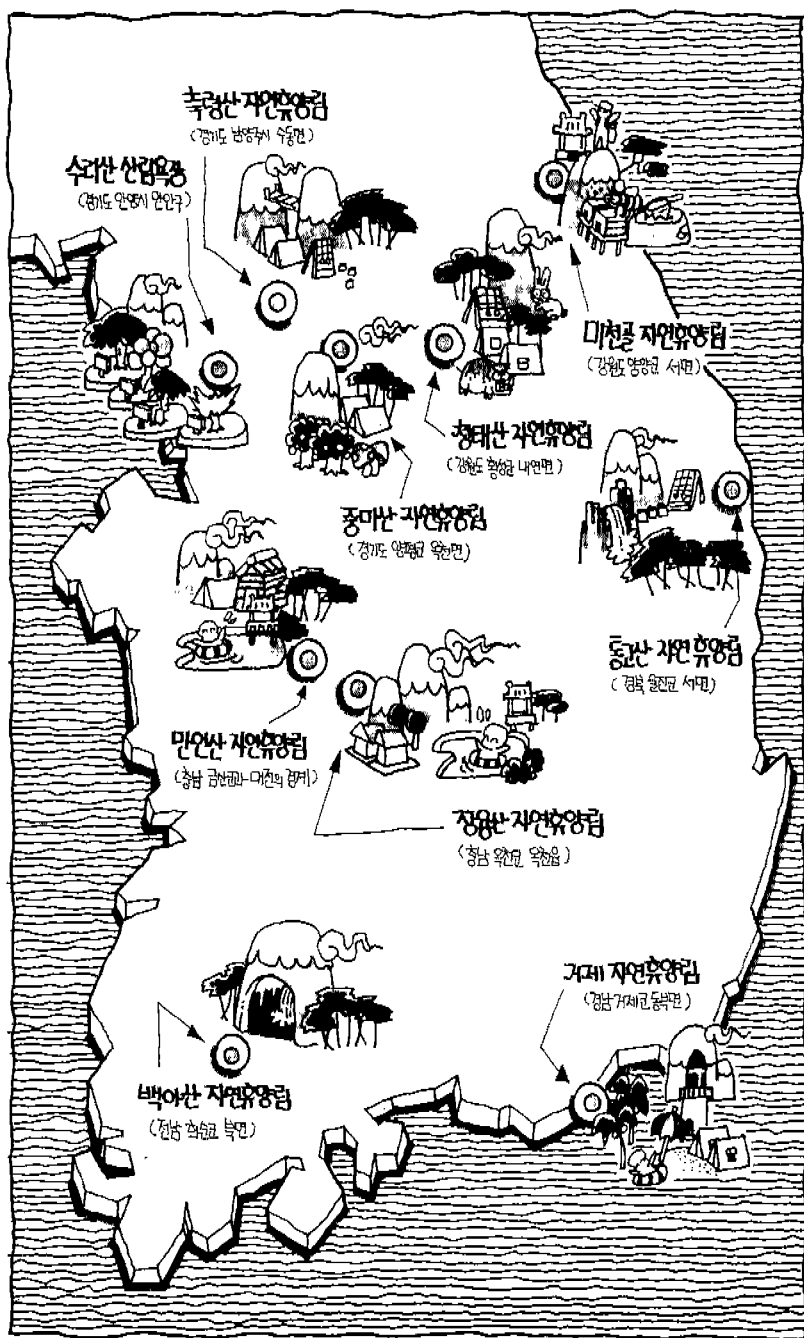
자료 : 자연사 기행. 1996.

산 속의 향기를 따라

□ 개 요

국토의 삼분의 이가 산으로 되어 있는 산악국가인 우리나라는 산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펼쳐오고 있다. '88년부터 조성된 휴양림을 찾아 나뭇잎들이 뿜어내는 향기를 맡으며 산림욕을 하고 밤하늘의 별 자리를 여행하는 동안 국토의 소중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숲 속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



□ 숲 속의 향기를 마시는 방법

- ▶ 식물의 생육이 왕성한 봄과 여름이 최적기이다.
- ▶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 침엽수림이 가장 좋다.
- ▶ 산 밑이나 산 꼭대기보다 산 중턱에서 특히 숲 가장자리에서 100m이상 깊이 들어간 숲일수록 삼림욕의 핵심인 피톤치드(나무들이 뿜어내는 방향 물질)가 많이 난다.
- ▶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공기가 잘 통하는 가벼운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 ▶ 삼림욕을 할 때는 땀 속 가득히 공기를 채우는 기본으로 숨을 깊이 들어 마신다.

□ 숲 속의 향기를 찾아서

중미산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중미산은 유명산, 백운산, 용문산 등 유명한 산들에 둘러싸여 신비한 안개를 피워내며 천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삼복더위에도 냉수욕을 한 듯 온몸이 시원해지는 이곳에는 삼림욕장 외에도 표고버섯 재배장, 산지 과수원, 자연관찰원 등이 있어 학습여행을 겸할 수 있는 곳이다.

❖ 찾아가기

서울 상봉터미널에서 양평행 직행버스 이용 후 양평에서 신복리행 완행버스 이용

축령산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찬 잣나무들로 한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잣나무숲 언덕길에는 흔들 평균대

와 목재숲 구름다리 등의 시설도 있다.

❁ 찾아가기

청량리역 앞에서 축령산행 버스 이용

수리산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수리산 삼림욕장은 약 8km의 긴 산책로에 ‘명상의 숲’, ‘쉬어가는 숲’, ‘독서하는 숲’, ‘석탑이 있는 숲’ ‘닝쿨터널 숲’ 등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 찾아가기

안양까지 시내버스 혹은 전철 1호선 이용 후 안양에서 병목행 완행 버스 이용

청태산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그 속에서 뛰어노는 노루, 멧돼지, 토끼 등 야생동물들의 정경이 어우러져 있는 인공림과 천연림이 멋진 조화를 이룬 곳이다.

❁ 찾아가기

원주행 고속버스 이용 후 원주에서 강릉행 일반 고속버스 이용, 삼교에서 하차

미천골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 위치한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울창한 산림속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계곡과 크고 작은 폭포들이 길게 이어져 있다. 입구에는 신라 시대 유적지인 선림원지가 있고 바라기 약수와 재래봉(토종별) 보

호구역 등이 있다.

※ 찾아가기

서울 상봉터미널에서 속초행 직행버스 이용, 양양에서 하차하여 휴양림까지 완행버스 이용

만인산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충청남도 금산군과 대전의 경계구역에 위치한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태조 이성계의 태를 모시기도 했을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자연 능선을 경계로 기능별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 찾아가기

대전에서 마전행 시내버스 이용하여 추부터널 입구에서 하차

장용산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충청남도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한 장용산 자연휴양림은 정겨운 풍경과 함께 시원한 녹음이 반기는 곳이다. 포옹바위, 왕관바위 등 기암괴석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계곡도 장관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여름치도 특이한 볼거리이다.

※ 찾아가기

대전에서 옥천행 직행버스 이용

통고산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의 태백산맥 속의 비경 불영계곡 상류에 위치한 통고산 자연휴양림은 계곡의 수려한 멋과 어우러져 어디를 둘러보나 감탄을 자아낸다. 백색의 화강암이 눈길을 끄는 불영계곡은 다양한 크기의 폭포들이 장관을 이루며 계곡 중심에 자리잡은 불영

사와 그 주위의 굴참나무 군락지도 역사적인 정취와 함께 시원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 찾아가기

울진에서 봉화행 직행버스 이용, 덕거리에서 하차

백아산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동화석굴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마당바위와 약수터에 이르면 싱그러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수려한 경치와 함께 동굴도 둘러볼 수 있는데 1.5km의 동굴에는 호수와 지하폭포가 있어 신비스러움을 더한다.

※ 찾아가기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리행 직행버스 이용

거제 자연휴양림

▶ 주변환경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노자산에 자리잡고 있는 거제 자연휴양림은 짙푸른 남해와 한산도를 곁에 두고 있어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 온난한 기후 덕택에 울창한 활엽수림과 아열대 식물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계곡과 삼림, 단풍이 어우러져 있다.

※ 찾아가기

장승포에서 학동행 완행버스 이용

자료 : 주제가 있는 여행.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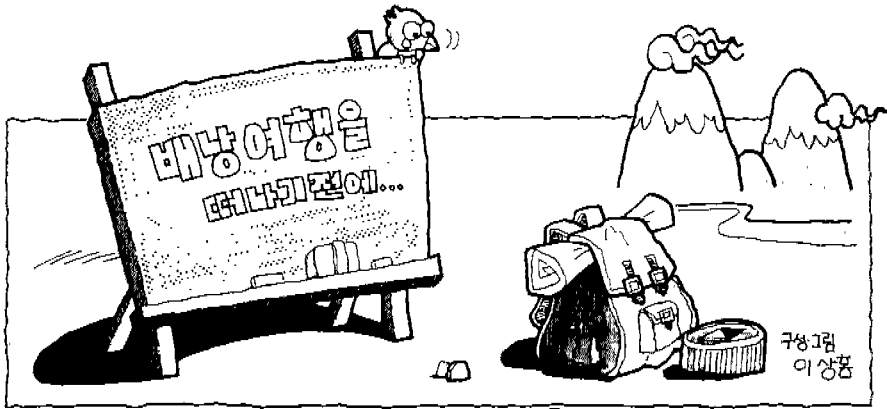
배낭 여행의 모든 것

배낭여행을 떠나기 전에
트레킹
백패킹

배낭여행을 떠나기 전에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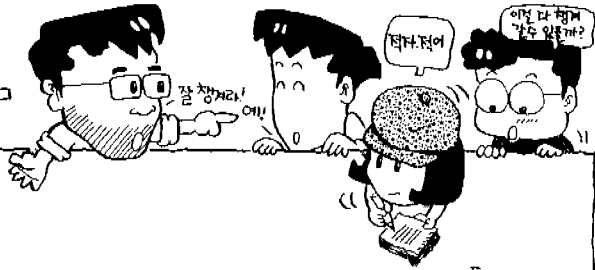
배낭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즉, 배낭여행의 계획과 준비, 배낭꾸리는 법과 지는 법, 지도 사용법과 읽기 그리고 야외에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유익하고 안전한 배낭여행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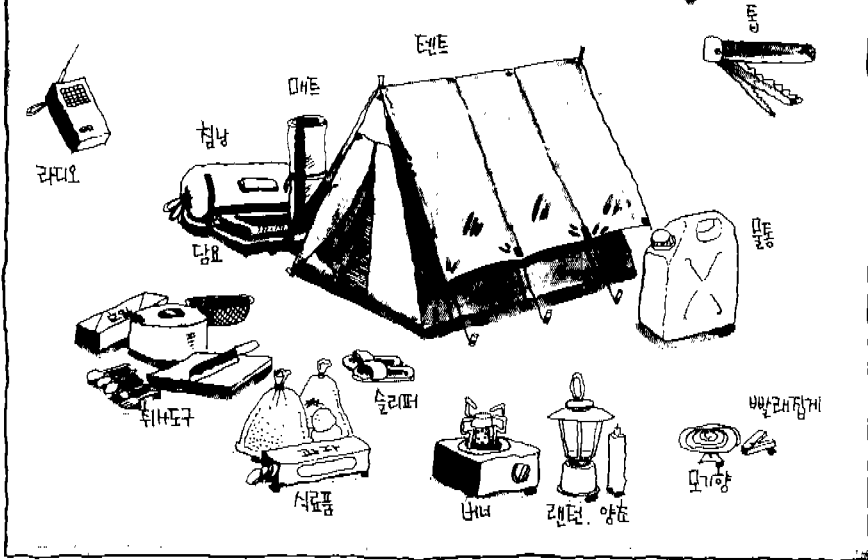


※ 사전에 여행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서로 의논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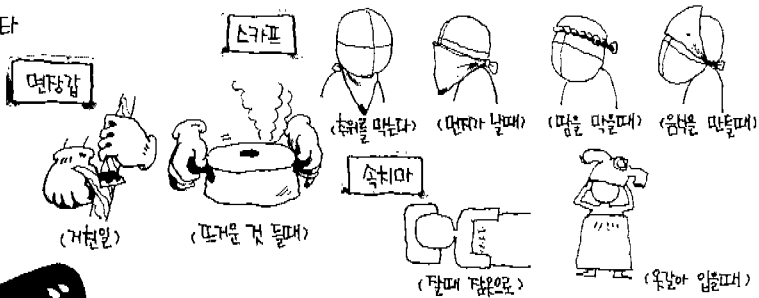
그리고 매일 많은 계획이며
추가로 다음의 것들을 준비한다



▶ 매일 일찍이 추가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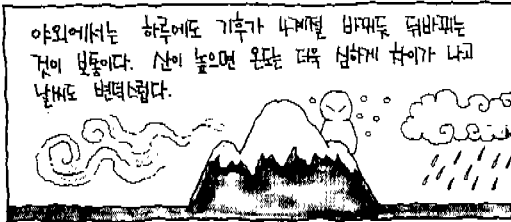
▶ 기타



면장갑, 스키프, 여자의
숙취마시는 의외로 쓸모가
다양해서 편리하다

도
필요에 따라 행거가도록 한다

복장 갖추기



1. 가벼운 신은 평소에 신던 편한 신발이 좋다 (새 신발은 좋지 않음)



2. 높은 산일 경우 등산화를 준비한다 (배착이 두껍고 발목을 보호)



3. 등산화를 살 때는 양말 2개를 신고 제대로 맞춘 신발을 고른다 (너무 크면 발톱이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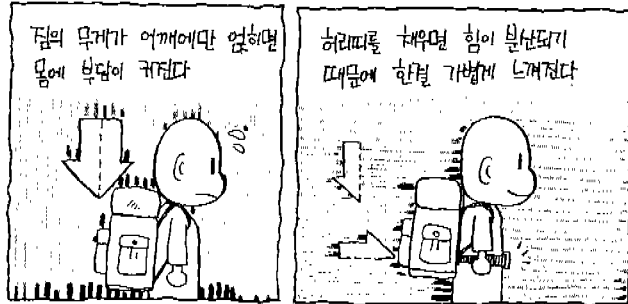
■ 배낭을 지는 법



1. 먼저 무게를 짚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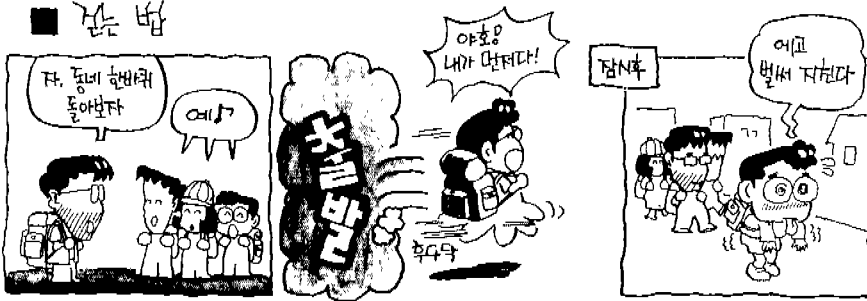
2. 큰 배낭일 경우는 허리를 사용한다



3. 쿠션을 둔다



■ 걷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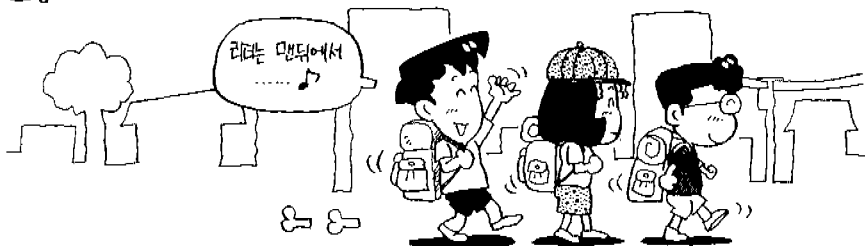
1. 자기 걸음보로 리듬있게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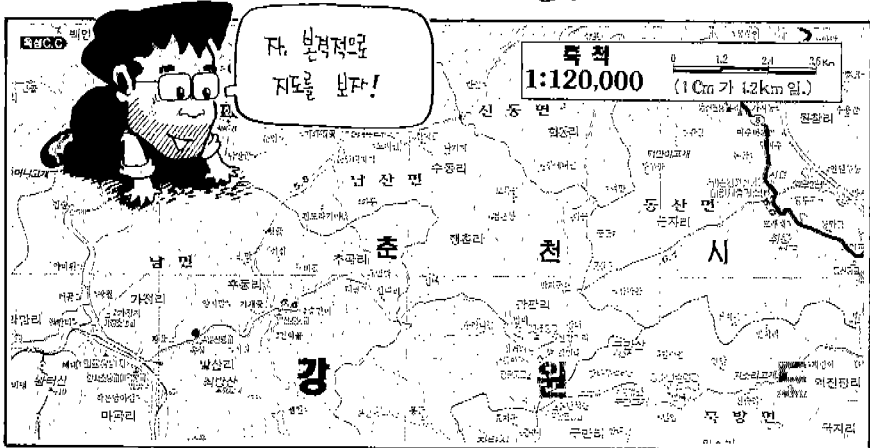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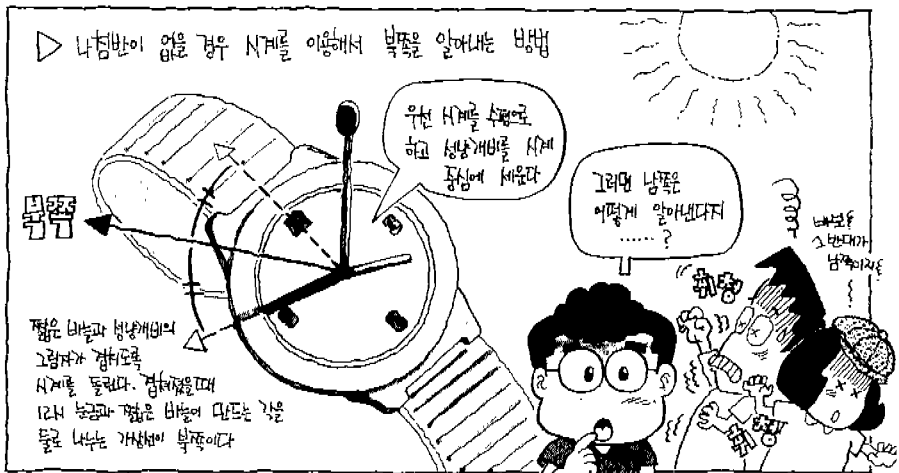
2. 오르막에서는 조금 폭으로, 내리막에서는 조심해서 걷는다



3. 단거리로 걸을 때는 느린 사람의 걸음에 맞춰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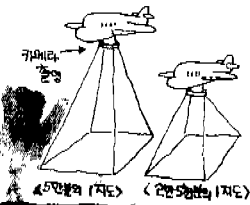


지도 사용법과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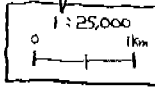


1. 축척

실제 길은 어느만큼 줄였는가 하는 것이 축척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25,000분의 1과 50,000분의 1 지도가 많이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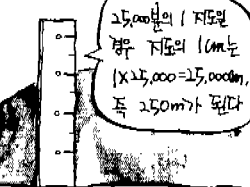


많은 지도에는 축척과
기준거리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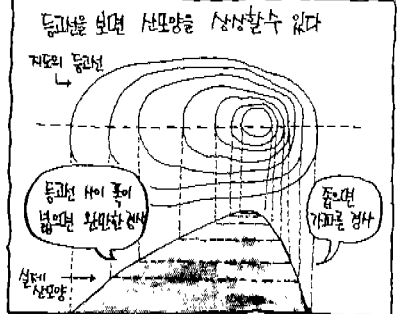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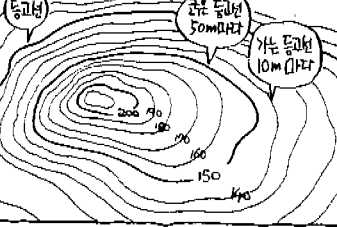
2. 거리

지도에서 등고선의 거리를 지면
에서 측정한 거리를 축척에 곱하면 실제
거리 알 수 있다.



3. 등고선

등고선으로 높이를 본다. 25,000분의 1 지도 경우,
등고선이 50m마다 굵게, 10m마다 가늘게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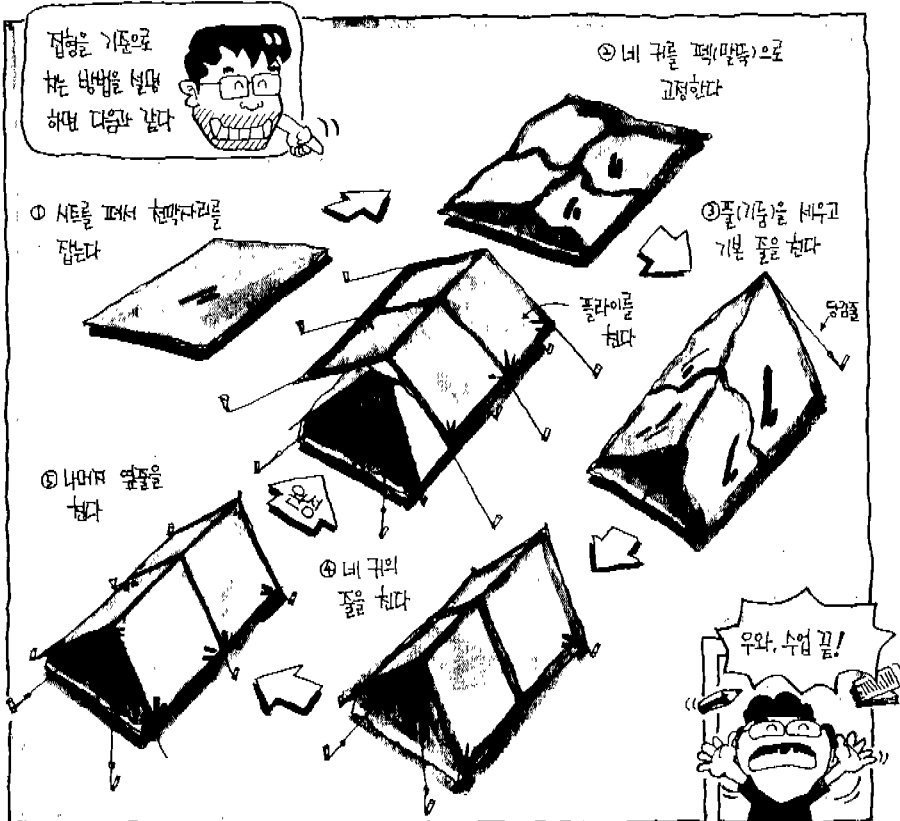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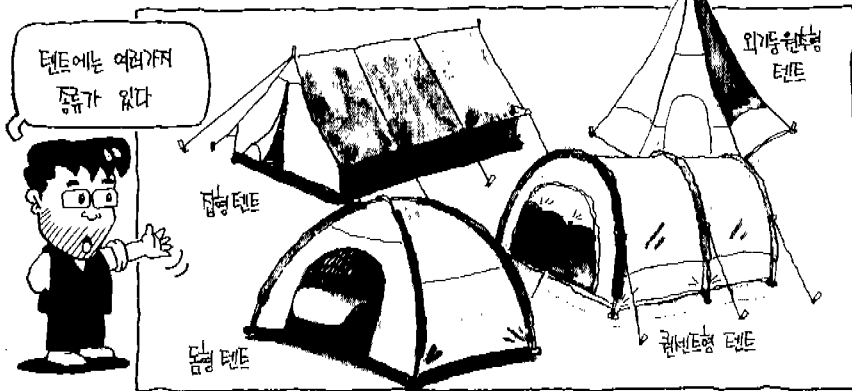
지도를 보고
먼저 파악할 것은
지형의 위축이다.

지형에서 등고선 지형
지도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
에서 찾아 지형의 위축을
파악

고고도 많은 지형은
지도에서 찾아 방향을
잡는 것이다.

자, 다음은
등고선의 법.....

■ 텐트 치는 법



□ 개 요

트레킹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장비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과 들, 냇가 사적지 등을 걸으면서 체력연마 및 자연과 역사에 대한 현장 학습까지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 트레킹의 역사

트레킹은 원래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집단 이주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생하면서 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심신수련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산야를 도보로 여행하던 화랑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이 험한 산악도보를 하는 외구그이 트레킹과 접목되어 고생하면서 하는 여행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트레킹의 특징

트레킹은 정상도달이란 목적지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며 전문적인 등반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 평지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들, 어느 곳이든지 도보로 여행하므로 단순한 걷기 운동처럼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높낮이의 변화가 있어서 재미있다. 또한 길을 떠날 때 배낭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식사도 간편하게 토스트나 김밥 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도보여행을 할 수 있다. 트레킹은 특별한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하루 10~30km이상 걸어야 하므로 체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힘든 것을 참으며 코스를 완주하는 동안 트레킹의 의미대로 고행을 통한 사색으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값진 여행길이 된다. 요사이의 ‘테마트레킹’이 늘고 있다.

● 테마트레킹의 종류

- ▷ 역사유적지 트레킹 ▷ 계절별 사진촬영 트레킹
- ▷ 삼림욕 트레킹 ▷ 봄꽃 트레킹
- ▷ 단풍트레킹 ▷ 철새 트레킹
- ▷ 바닷길 트레킹 ▷ MTB 트레킹

□ 트레킹을 하려면

편안한 옷차림과 발이 편한 신발, 비상약품, 간단한 도시락 등만 있

으면 된다. 목적지를 정하고 떠날 때는 그 지역과 유적지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가면 더욱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다. 트레킹 도중 그 지역이나 자연생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 곳에 얹힌 이야기나 자연 생태계의 신비를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하면 식견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주의사항

- ▷ 반드시 길 왼편으로 걷는다.
- ▷ 도로의 넓이에 따라 줄을 맞추어 걷는다.
- ▷ 등산시에는 하산하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한다.
- ▷ 걷는 시간은 평지에서 한 시간, 산을 오를 때는 20분 정도가 적당하며 각각 5~10분씩 휴식한다.
- ▷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분리하여 버린다.

□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장소

트레킹의 장소로는 주로 완만한 지형으로 도보에 편한 곳, 사람들의 산길이 닿지 않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조상의 열이 담긴 문화재 등이 있는 곳이 적합하다.

● 트레킹 코스

- ▷ 강원도 가평 칼봉산 계곡길인 승안 2리에서 중산리, 현리까지
- ▷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에서 고석정까지
- ▷ 전라남도 승주군 조계산 송광사에서 천자암, 마당재, 선암사를 도는 코스
- ▷ 경상북도 경주 일대의 민속공예촌과 불국사, 화랑의 집, 남산으로 이어지는 코스
- ▷ 충청남도 계룡산 갑사에서 용문폭포, 금잔디고개, 동학사로 연결되는 코스
- ▷ 청평과 설악일대

▷ 강화도 마니산 전등사 일대

자료 : 최신 레포트 백과. 1995.

□ 개 요

백패킹은 간편한 차림새로 깊은 산 속의 실개천이나 계곡을 따라 떠나는 활동이다. 잠시 문명 도시와의 인연을 끊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등산과 트레킹의 묘미가 복합된 활동이다.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오지를 찾아 그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찾는 과정속에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다.

□ 백패킹의 역사

백패킹은 점점 기계화, 개인화, 물질화 되는 사회에서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다. 문명의 이기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현대의 팍 짜여진 일과에서 벗어나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패킹의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는 아직 초보 단계이다.

□ 백패킹의 특징

백패킹은 원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뜻으로서 등산과 트레킹의 묘미가 복합된 활동이다. 3~4인이 한 팀을 이루어 도로도 없고 인적도 드문 산골 계곡을 배낭을 메고 걷다보면 무인지경인 듯한 한적함을 맛볼 수 있다. 하천 지류를 따라 걸어도 되고 계곡을 따라 산을 헤치며 가도 된다. 또한 외딴 마을에 들어가 순박한 주민들과 옛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멋도 있다. 그러나 등산로가 트이지 않은 험한 길을 탐험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하루 10km정도 코스가 적당하다. 백패킹도 트레킹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획하여 즐길 수 있다.

□ 백패킹을 하려면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2만5천분의 1 지도를 보고 대상지의 지형지물을 철저히 분석하는 일부터 해야한다. 이 지도는 매우 자세하여 실지형 250m가 1cm로 표시된다. 따라서 30cm자로 지도를 재보면 대충 실제거리가 나온다. 백패킹은 트레킹과 달리 1박을 하므로 편한 신발, 배낭, 텐트와 침낭, 식료품, 취사장비 등을 준비해야 한다. 등산장비 사용법, 야영법 등을 익혀 두면 도움이 된다.

□ 백패킹시 주의사항

- ▷ 많이 걸으므로 양말을 꼭 신고 다녀야 발에 물집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 ▷ 여름 장마철에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 ▷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분리하여 버린다.

□ 백패킹에 적합한 장소

가능하면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적당하다.

● 백패킹 코스

▷ 인제 - 홍천 내린천 코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남전동 마을에서 홍천군 내면 광원리 마을까지 20km로 여울과 소가 연이어 펼쳐지는 적막강산의 협곡이 뛰어나다.

▷ 정선 구절리 - 명주 대기리 코스

남한강 지류인 강원도 정선군 조양강의 상류지대에 자리한 송천군 구절리에서 명주군 대기리에 이르는 구간 20km로 물이 맑고 암반지대가 발달한 하천 풍경이 절정이다.

▷ 울진 왕피천 - 장수 포천 코스

100리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의 계곡이므로 야영 준비가 필요하고 백패킹의 깊은 맛을 볼 수 있는 곳이다.

▷ 가마소계곡(부연계곡) 코스

15km 길이의 원시림으로 절경을 이룬다.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 범람원 - 충주 코스

여주에서 양평으로 향하는 국도변에 길게 이어진 한적한 모래땅이다.

▷ 안동 - 하회 낙동강 코스

▷ 강원도 명주군의 옥계 용소골, 범바위골 코스

오염되지 않은 자연 맑은 물이 일품이다.

자료 : 최신 레포트즈 백과. 1995.

모험도감. 1992.

참 고 문 헌

- 류인학(1995). 우리 명산 답사기. 서울 : 자유문학사.
- 박기성(1995). 울릉도. 서울 : 대원사.
- 박영규(1996).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 도서출판 들녘.
- 뿌리깊은 나무(1992). 한국의 발견. 서울 : 뿌리깊은 나무.
- 사토우치아이, 김창원 역(1991). 자연도감. 서울 : 진선출판사.
- _____ (1992). 모험도감. 서울 : 진선출판사.
- 송일봉(1996). 주제가 있는 여행. 서울 : 성하출판사.
- 안경호(1995). 한국 100명산. 서울 : 평화출판사.
- 이이화(1993). 이야기 인물한국사 3. 서울 : 한길사.
- 이현희(1996). 이야기 인물한국사. 서울 : 청아출판사.
- 이형권(1995). 국토는 향기롭다. 서울 : 미래사.
- 이형석, 김주환(1995). 한강. 서울 : 대원사.
- 정 윤(1993). 어디가서 조용히 생각하다 돌아오고 싶다. 서울 : 도서출판 장락.
- 최성민(1996). 그곳에 다녀오면 공부할 맛이 난다 1.2.3.. 서울 : 대원사.
- 최연선(1996). 자연사 기행. 서울 : 한겨레신문사.
- 한광일(1995). 최신레포츠백과. 서울 : 도서출판 솔바람.
-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5). 답사여행의 길잡이 1-7. 서울 : 돌베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경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